



2025 아트경기



목차

6 – 7	아트경기 소개
8 – 9	행사안내
10 – 11	2025 아트경기 참여작가
12 – 141	2025 아트경기 작가 소개
143 – 151	2025 아트경기 협력사업자

24시간, 365일, 아트경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경기도 작가의 작품을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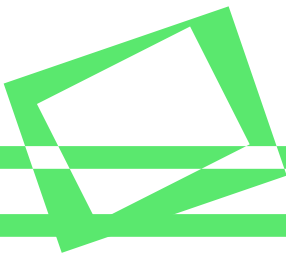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 시각예술 작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미술시장 진입, 그리고 건강한 미술시장 발전을 위한 '경기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아트경기 사업모델의 독창성은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창작자와 유통자를 동시에 조명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작(작가)-유통(사업자)-소비·향유(대중)'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가는 사업자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미술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자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사업을 개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작가와 사업자 간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기획·지원하고, 이를 통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올해 아트경기는 경기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작가 65인을 선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트경기 작가의 작품을 미술품 임대·전시, 해외 아트페어, 판매형 전시 사업을 통해 선보입니다. 다변화된 미술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획된 사업을 통해, 관람객은 폭넓은 예술을 경험하고 미술품 구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트경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가 발굴과 유통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사 안내

미술품 임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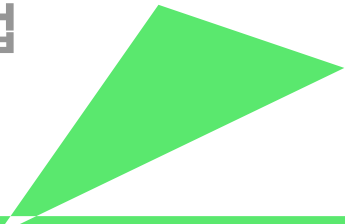
‘미술품 임대·전시’는 도내 공공시설 및 민간기업의 로비, 방문객 공간, 사무 공간에 아트경기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여, 임직원과 방문객의 미술품 향유 기회를 높이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모델을 제안합니다.

해외 아트페어



협력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주요 글로벌 아트페어에 아트경기 작가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해외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보다 확장된 미술품 판로를 개척하고, 경기도 시각예술 작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술품 판매형 전시사업



‘미술품 판매형 전시사업’은 접근성이 높은 복합문화시설에 전시형 판매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일상에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아트경기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아트페어(국내)를 통합한 단일 판매사업 형태로 아트경기 브랜드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사업유형	행사명	일정	장소	기획
미술품 임대·전시	미술품 임대 · 전시	4월-12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미술로 / 미학관
해외 아트페어	어포더블 아트페어 런던	10.15(수) - 10.19(일)	Evolution London, Queenstown Road, Chelsea Bridge, London SW11 4NJ, UK	갤러리 타블로
	런던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11월 말 - 12월 초	미정	리미티드블루 (ART)
미술품 판매형 전시사업	어제는 과거의 미래다	10.30(목) - 11.4(화)	송원아트센터	월링앤딜링 아트컨설팅

강상우	Kang, Sangwoo
강정민	Kang, Jungmin
강해찬	Kang, Haechan
구하림	Koo, Halim
권세진	Kwon, Sejin
권순욱	Kwon, Soon Wook
김동기	Kim, Donggi
김민준	Kim, Minjun
김민지	Kim, Minji
김보민	Kim, Bomin
김보중	Kim, Bo-joong
김연홍	Kim, Yeonhong
김이태	Kim, E Tae
김재익	Kim, Jaeik
김준형	Kim, Junhyeong
김지은	Kim, Ji Eun
김태균	Kim, Taekyun

김태형	Kim, Taehyung
김희연	Kim, Heeyon
나광호	Na, Kwangho
노수현	Roh, Suhyun
노한솔	Noh, Hansol
도요카와	Toyokawa
류희수	Ryu, Heisoo
박경	Park, Kyung
박두리	Park, Duri
박민선	Park, Minseon
박소현A	Park, Sohyun
박소현B	Park, Sohhyun
박용화	Park, Yonghwa
백종하	Baik, Jongha
서해영	Seo, Haeyoung
석지아	Suk, Jia
손모아	Son, Moah

송상원	Song, Sangwon
안성석	Ahn, Sungseok
연호석	Yeon, Hosuk
오승식	Oh, Seungsik
용하현	Yong, Hahyeon
유은석	Yoo, Eunsuk
이다	Rheeda
이립	Lee, Leap
이승연	Lee, Seungyoun
이재명	Lee, Jaemyung
이채민	Lee, Chaemin
이현지	Lee, Hyunji
임경식	Lim, Kyungsik
임수식	Lim, Soosik
임승균	Lim, Seungkyun
임혜지	Lim, Haeji
장양희	Chang, Yanghee

정연지	Jung, YeonJi
정정호	Jung, Jungho
조미예	Cho, Miye
조채임	Cho, Chaeim
최명은	Choe, Myungeun
최유희	Choi, Yuhee
최윤지	Choi, Yoonji
파랑	Parang
한&모나	Han & Mona
한부열	Han, Booyeol
한조영	Han, Joyoung
한지선	Han, Jiseon
홍남기	Hong, Namkee
황선숙	Hwang, Sunsook

강상우

Kang, Sangwoo

b. 1977

주요 전시로는 《몽실통통 2》(스페이스몼 미술관, 2024), 《타이틀매치(이동기, 강상우 이인전)》(북서울시립미술관, 2023) 등이 있다.



강상우는 기억 속 환상적 이미지와 일화를 바탕으로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유소년기 문화 경험인 TV 시트콤, 아동 심리 프로그램, 조립식 장난감 등을 소재로 입체, 설치,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환상적 이미지들과 경험들이 어떻게 현실과 관계를 맺는지에 관해 질문한다.



강정민

Kang, Jungmin

b. 1995

주요 개인전으로는 《시선의 연결점》(서초구립양재도서관, 2025), 《부유하는 조각들》(고양아람누리, 2022),
단체전은 《()으로부터 ()에서 ()으로》(의정부문화역 이음갤러리, 2025)등이 있다



강정민은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이미지를 수집해 해체하고 변형하는 작업을 한다. 추출된 이미지들이 새롭게 관계를 맺고 움직이며, 원본의 서사를 지운 채 새로운 해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이미지의 생태와 우리의 태도를 탐구한다.

부서짐의 집합1
116.8x91.0cm, oil on canvas, 2021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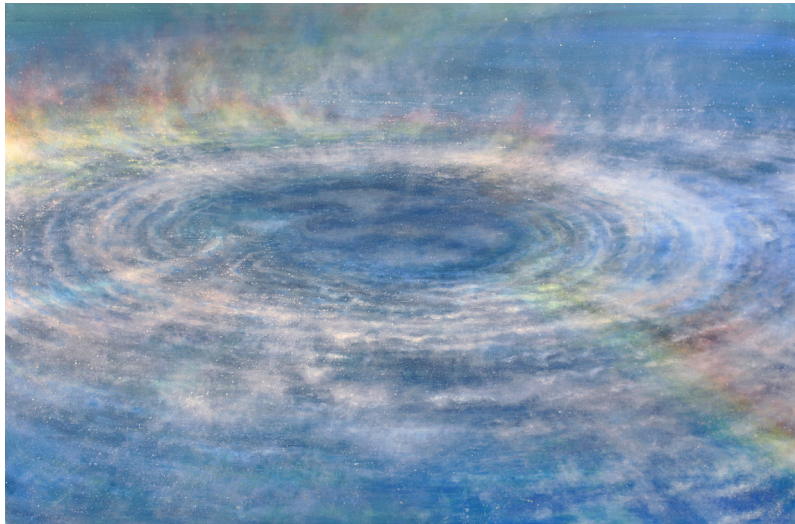
부서짐의 나열5
112x162.2cm, oil on canvas, 2022

강해찬

Kang, Haechan

b. 1995

주요 개인전으로는 《물빛 대기》(갤러리 도스, 2022), 《Sunlight Punch》(유영공간, 2022)가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CATCH HOUR》(옥상팩토리, 2024)등이 있다.



강해찬은 회화와 드로잉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대기의 요소와 이를 통해 전달되는 감각을 시각화한다. 그는 일상과 비일상이 뒤섞인 공간을 그리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충돌하고 흐르며 반짝이는 대기의 존재를 포착함으로써 감상자가 일상 속 감각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물빛 무지개 3
97x145.5cm, 캔버스에 아크릴, 2022

16



Stormy silence
100x80.3cm, 캔버스에 아크릴, 2024

17



구하림은 불안과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내면의 두려움과 소심함을 시각 언어로 표현한다. '보호색' 시리즈는 감추고 드러내는 흔적을 통해 감정을 탐구하고, 얼룩지고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 내면의 균열을 드러내는 수행적 실천이다. 작가는 불안을 창작의 동력으로 삼아 치유와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b.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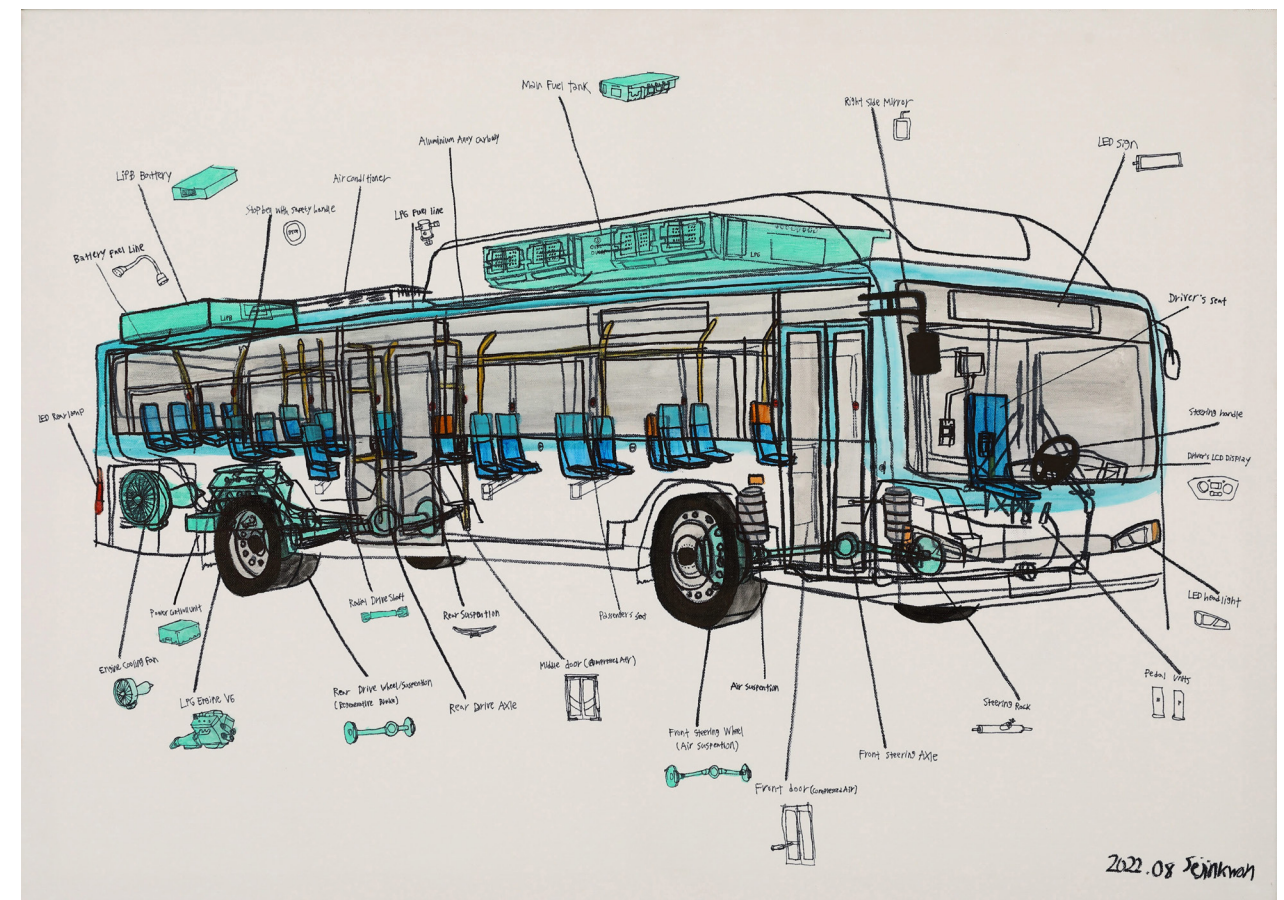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HELLO ENGINE》(갤러리 활, 2024) 등이 있으며,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강릉아트센터, 2024), 《한국미술 과거-현재-미래》(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2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권세진은 자동차와 기계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를 치밀하게 해석하고 재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계기판, 엔진, 기어레버와 같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묘사하며, 금방이라도 작동할 듯한 생동감을 화면에 불어넣는다. 최근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부속품에 주목하며, 드로잉부터 아크릴 채색, 도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의 동력 구조를 시각화하고 있다.

My Music Studio
72.7 x 90.9cm, 캔버스에 아크릴 & 펜, 2025

20



그린시티 저상버스
65.1x90.9cm, 캔버스에 아크릴 & 펜, 2022

21

권순욱

Kwon, Soon Wook

b. 1998

주요 개인전은 《머물고 싶은 곳-아름다운 대한민국》(인사아트센터, 2024)이 있으며, 《Art Capital 2025》(프랑스 Grand Palais, 2025), 《성남작가조명전 '아이덴티티의 성장'》(성남아트센터 반달갤러리,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권순욱은 자폐성 및 청각·언어장애를 지닌 시각예술가로, 네모, 동그라미, 세모 등 기초 도형의 반복을 통해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독창적 시각 언어를 구축한다. '아름다운 세상' 시리즈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다름 속의 조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다름을 이해하고 가치를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매 순간 창조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세상
130.3x130.3cm, Mixed media, 2024

22



23

지나간 시간과 지금
130.3x130.3cm, Mixed media, 2024

김동기

Kim, Donggi

b. 1980

주요 개인전으로는 《누름바름》(충남창작스튜디오, 2024)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김동기는 20여 년간 판화 작업을 지속하며 판화가 지닌 확장 가능성에 주목해 다양한 기법과 설치 방식, 주제를 실험해 왔다. 최근에는 작가의 신체성과 감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업의 양식과 시각성을 정돈해가고 있다. 작가는 원시 자연이나 도시 외곽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한 뒤, 이를 목판에 새겨나가는 과정에서 즉흥적인 필치와 추상적 감각을 드러낸다.

김민준

Kim, Minjun

b. 1996

주요 전시로는 《21회 사진비평상 수상자전》(충무로 갤러리, 2024), 《자유발언展》(전주국제사진제, 2023) 등이 있으며, 2024년 21회 사진비평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김민준은 이미지와 내러티브의 관계를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시각 매체로 풀어내며, 역사성과 기록성,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색한다. 파편화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보이는 것 너머의 사회적 풍경과 사라진 흔적을 드러낸다. 허구를 통한 시각적 재현은 현실과 소멸 사이의 틈을 메우며, 이미지로 사회와의 연결을 시도한다.

발효중#2
30x40cm, 잉크젯프린트, 2022

26



빨래가 있는 정원
60x75cm, 잉크젯프린트, 2023

27

김민지

Kim, Minji

b. 1993

주요 개인전으로는 《뺨를 통과하는 창》(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023), 《관찰하기: 좁고 깊은 터널》(CICA 미술관, 2020)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 《GIAF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 수상작가전》(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023), 《화랑미술제 특별전 ZOOM-IN》(코엑스, 2021) 등 여러 곳에 참여했다.



김민지는 ‘받아들임(수용)’의 한 과정으로서 내적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 본인이 겪었던 마음챙김 명상법에 기초한 심리치료 과정을 작업으로 가져와 작가 자신의 치유뿐 아니라 관객의 평안을 기원하는 바람을 담는다. 일종의 심리치료 혹은 ‘받아들임’을 향해 가는 수행(修行)으로서 작업을 시도하고, 작가 본인과 타인의 치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고자 한다.

두려움, 공황
72.7x72.7cm, Oil stick on ramie cloth, 2017

28



슬픔, 공허
72.7x72.7cm, Oil on hemp cloth, 2017

29

김보민

Kim, Bomin

b. 1985

주요 개인전으로는 《LINK》(갤러리 다선, 2024), 《납작한 풍경》(서인 갤러리, 2023) 등이 있으며, 《평론가 선정 10인 청년작가 기획전》(인사아트프라자,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이 소장 되어있다.



김보민은 다양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억과 감정을 토대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구성한다. 실재하는 대상과 실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공간이 혼재된 풍경을 통해 익숙하지만 생경한 장면을 만들고 '우리는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작업은 감상자들에게 타자와 세계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사유의 순간을 제안한다.



김보중

Kim, Bo-joong

b. 1953

주요 개인전으로는 《전혁림미술상 수상기념전》(전혁림미술관, 2019), 《흐르는거주지 - 길》(인디프레스 갤러리, 2017), 《3개방에 의한 풍경》(성곡미술관, 2001) 등이 있으며, 《대지의 시간》(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21), 《가족의 정원》(양평군립미술관, 2019)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김보중은 생태와 공생의 가치를 회화로 풀어내며, ‘공생인(homo symbiosus)’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제안한 용어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뜻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을 관찰하며 풍경 회화를 제작하는 ‘다종(多種)의 길’을 작업의 또 다른 축으로 삼고 있다.

공생인
53x45.5cm, 종이에 아크릴, 2025

32



가을뜨락
194x130cm, 종이에 아크릴, 2015

33

김연홍

Kim, Yeonhong

b. 1994

주요 개인전으로는 《Tail on Tail》(상업화랑, 2024), 《SWOOSH-!》(ABMS, 2023)가 있으며, 2024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ONSO ART 신진작가로 선정되었고, 2022년 상업화랑의 《EX-UP》 공모 프로그램 3-4기에 참여한 바 있다.



김연홍은 가상의 계절을 상상하고, 계절의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요소의 흔적을 캔버스 위에 남긴다. 날씨나 계절, 장소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물결을 보며, 화면 속 장소에서 가시적인 대상의 특징과 비가시적인 요소인 바람의 세기, 향기, 빛의 온도를 포착한다. 물감이 스며들고 퍼지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물감이 우연하게 섞이는 모습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한다.

Wave of Afterglow
30x100cm, Acrylic on canvas, 2024

34



Soft Gestures: featherlight
31.8x31.8cm, Acrylic on canvas, 202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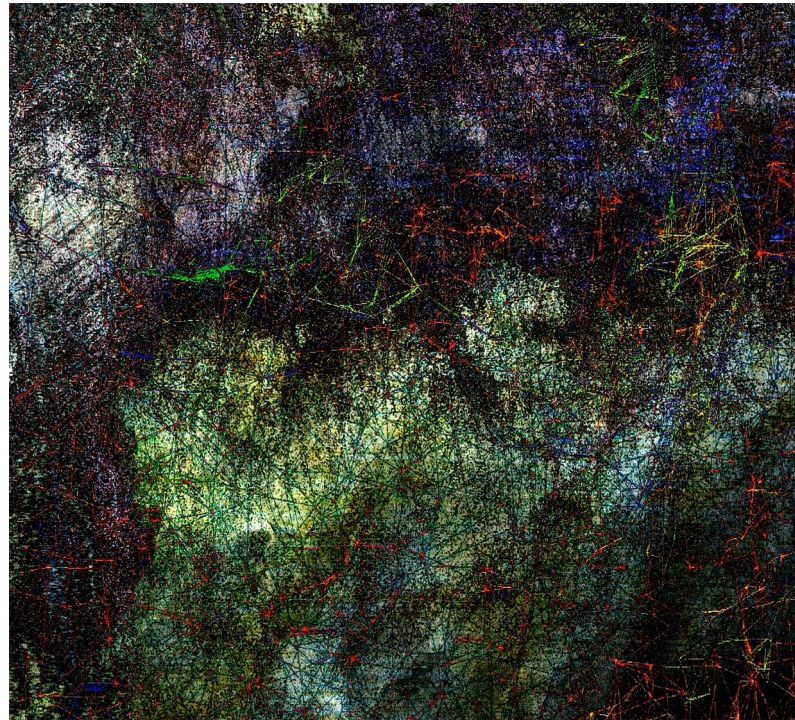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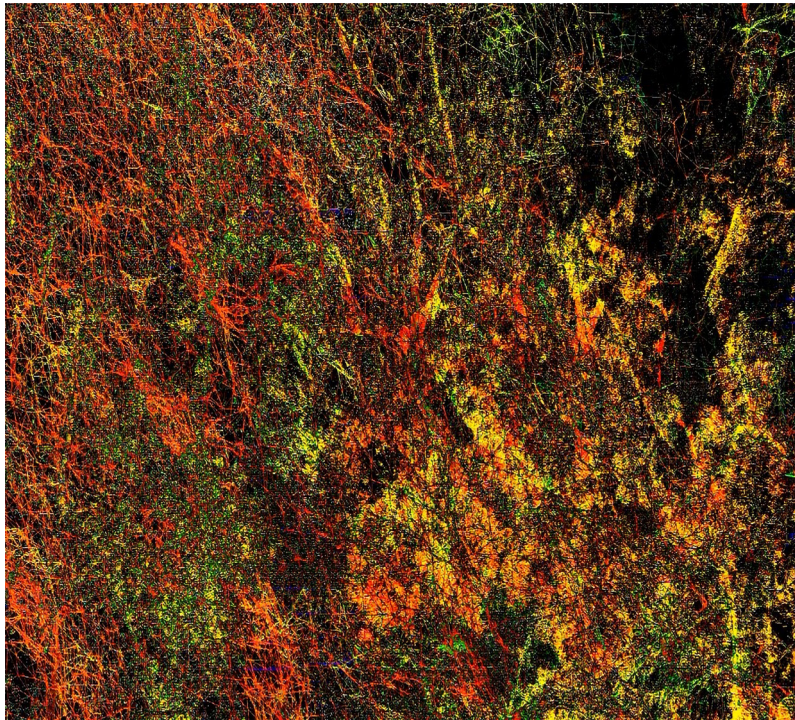
김이태는 정신의학사와 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탐구하며, 2020년 개인전 《Everyday Tomorrow》(킵인터치, 2020)에서 “내일이 매일같이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시각화했다. 그는 신경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증상들을 캐릭터로 번역하여 이야기 [Burn Pick Up: 태울 수 있으면 태워서 떠나고 싶습니다]를 집필했다. 2024년 연극형 전시 《스팟라이트, 평평한 무덤들에게》(탈영역우정국, 2024)에서는 ‘감각번역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시설, 추모, 애정의 층위를 다뤘다.



김재익

Kim, Jaeik

주요 개인전은 《상실의 기록 - 소생하는 기억의 틈》(DDP 갤러리문, 2024), 《어떤상실》(북한강갤러리, 2024) 등이 있으며 《장밋빛 미래: 모호한 경계》(영등포아트스퀘어, 2025), 《파편화된 알고리즘》(대구예술발전소,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도 참여하였다.



김재익은 도시사회와 특정 장소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한 기억의 레이어를 채광하듯 탐색한다. 중첩되면서도 불연속적인 이 각기 다른 레이어들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시기별로 공간을 점유했던 물질적·비물질적 환경의 맥락을 되짚으며 특정 전시 장소를 통해 가시적·비가시적 세계의 이면을 조형화한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충돌하는 비가시적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하는 삶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

숲의 정령과 마주하는 세계#1
50x50cm, Digital Drawing on Archival Pigment Print, 2025

38

39

숲의 정령과 마주하는 세계#2
50x50cm, Digital Drawing on Archival Pigment Print, 2025

숲의 정령과 마주하는 세계#3
50x50cm, Digital Drawing on Archival Pigment Print, 2025

김준형

Kim, Junhyeong

b. 1996

주요 개인전은 《기쁜날》(나이프아트 갤러리, 2024)이 있으며, 《시그널 정기전-시와 찬잔 사이》(교하아트센터, 2025), 《미래의 꿈》(누림아트갤러리, 2023)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김준형은 시를 그리는 화가로, 시집을 필사하며 시작된 그림 작업을 통해 말로 전하기 어려운 마음을 따뜻한 이미지로 표현한다. 나이브아티스트 모임 '시그널'과 함께 시가 있는 그림책 작업과 전시에 참여해왔으며, 최근에는 흙과 종이를 활용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지은은 거대한 도시 풍경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제도와 법규를 평면 및 설치 작업을 통해 다루며 현대사회에 ‘제도화된 풍경’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작가는 장소와 비장소의 모순, 가상공간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장소성을 콜라주 방식으로 종합함으로써, 합리성으로 포장된 제도화된 공간의 불합리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경험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장소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을 던진다.



김태균

Kim, Taekyun

b. 1975

주요 개인전으로는 《완충의 시간》(경기천년길갤러리, 2022), 《각색된 영토》(김중영미술관, 2019)가 있으며, 《평화를 준수하라》(전태일 기념관 갤러리, 2023), 《상상의 공식》(부산현대미술관, 2019), 《경계 155》(서울시립미술관, 2017)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김태균은 동시대 지정학적 이슈를 시각예술로 풀어내며,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 현상을 현대미술의 조형언어로 재해석한다. 특히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근현대사를 연구한 결과물을 시각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지정학적 이슈에서 발생하는 예술언어를 새로운 사회적 담론으로 제안한다.

Sign1-Island-2
84x125cm, 디지털 프린트, 유리액자, 2010

44



Sign1-Island-1
84x125cm, 디지털 프린트, 유리액자, 2010

45

김태형

Kim, Taehyung

b. 1976

주요 개인전으로는 《그때 또는 지금》(KT&G 상상마당갤러리 춘천, 2023), 《집착 혹은 애착》(A BUNKER갤러리, 2021)이 있으며, 《2025 띠그림展 뱀》(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25), 《한여름 밤의 상상》(대전 신세계갤러리, 2024) 등 다수에 단체전에 참여 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등 주요 기관들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태형은 유년의 기억과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순된 감정의 틈을 이미지로 재조합하며, ‘공상과 망상’ 사이의 회화 세계를 구축해왔다. 일상적 풍경을 매개로 재구성된 그의 작업은 작가 자신에게 ‘치유와 위안’의 경험이었듯,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작품을 통해 공감과 사유, 정서적 회복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김희연

Kim, Heeyon

b. 1985

주요 개인전은 《김희연 개인전》(오스갤러리, 2020), 《Soundless Dialogues》(아트비트 갤러리, 2018)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금호미술관, 분당서울대병원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희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이면과 인공·자연이 공존하는 풍경 속 간극을 회화로 포착한다. 일상의 평범한 장면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극적인 화면을 연출하며, 거친 린넨 위에 매트한 아크릴을 사용해 색이 바랜 듯한 톤과 질감으로 무미건조한 도시의 고요함과 공허함을 표현한다.



나광호

Na, Kwangho

b. 1979

주요 개인전으로는 《강원도감: 발 아래 피어난 시간의 단면》(금호미술관, 2024), 《생활도감》(김홍도미술관, 2023), 《복음도》(이응노의집, 2022) 등이 있으며, 《사물학 II》(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15), 《교감》(삼성미술관 리움, 201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나광호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감각의 지도를 제작하며, 커뮤니티 아트와 시각예술을 접목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강원도의 강과 들판, 식물에서 채집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화와 도감 형식의 시각예술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도감(圖鑑)’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었다.



노수현

Roh, Suhyun

b. 1996

주요 개인전으로는 《불완전한》(탐골미술관, 2025), 주요 단체전으로는 《양자 얽힘》(중국 ABI SPACE, 2025)와 《나비세대》(중국 중심미술관, 2024) 등이 있다.



노수현은 상처와 질병, 무상,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공동의 서사로 확장하며, 삶의 유한함과 자연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동양적 사유 안에서 바라본다.

상설 2
24x36cm, 파인아트 프린트, 2023

52



53

Complications
66x44cm, 파인아트 프린트, 2024



노한솔은 일상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고정된 정의와 학습된 정보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이를 인지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업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과거부터 편의와 편리를 위해 정리된 것들의 상징과 의미, 정해진 질서를 되짚으며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고 익숙한 세계에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굳-보이
130x130cm, 장지에 먹과 스프레이, 2023



초롱○○-
108x145.5cm, 장지에 먹과 스프레이, 2023

도요카와 Toyokawa

b. 1983

주요 전시로는 《평화를 빙니다》(갤러리 헤세, 2024), 《VIBE》(진관동 그림가게 갤러리, 2022) 등이 있다.



도요카와는 그래피티, 설치, 디지털 회화, 콜라주 등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통해 과감한 색상과 오브제의 조합을 선보인다. 귀신보다 무섭다고 느껴지는 현실의 부조리, 흥하고 험한 것들, 영적인 존재, 그리고 인터넷 밈과 같은 요소들을 수집하고 재해석하며 시각화한다. 시각디자인 업계에서의 활동 역시 병행하며, 이미지 생산의 경계를 넘나든다.

WE GONNA BE OKAY 01
140x60cm, Mixed Media, 2025

5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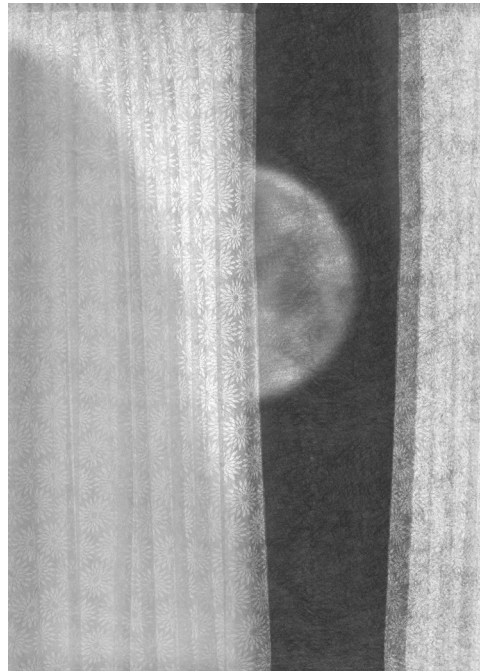
희망의 탑 HOPE TOWER 02
180x76cm, Installation art, 2025

류희수

Ryu, Heisoo

b. 1976

주요 개인전으로는 《고양작가 릴레이 개인전》(갤러리 빛뜰, 2024), 《2021 고양아티스트365》(갤러리누리, 2021) 등이 있다.



류희수는 사라지고 잊히는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디지털과 회화 작업을 병행하며 자신만의 흑백 풍경을 만들어간다. 넓은 사진에서 느껴지는 정서처럼, 오래된 꿈결 같은 이미지를 통해 도시화로 인해 밀려난 숲, 생명, 공간, 사람, 동물들의 이야기를 시각화한다. 그의 작업은 잊힌 것들에 대한 애도이자 공존의 가치를 향한 제안이며, 사진과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작업 위에 연필 드로잉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모두의 밤 16
42x29.7cm, 한지 프린트, 연필, 검은색 색연필, 2024



58

59

my little dream
80.3x116.8cm, 한지 프린트, 연필, 검은색 색연필, 2024

박경

Park, Kyung

b.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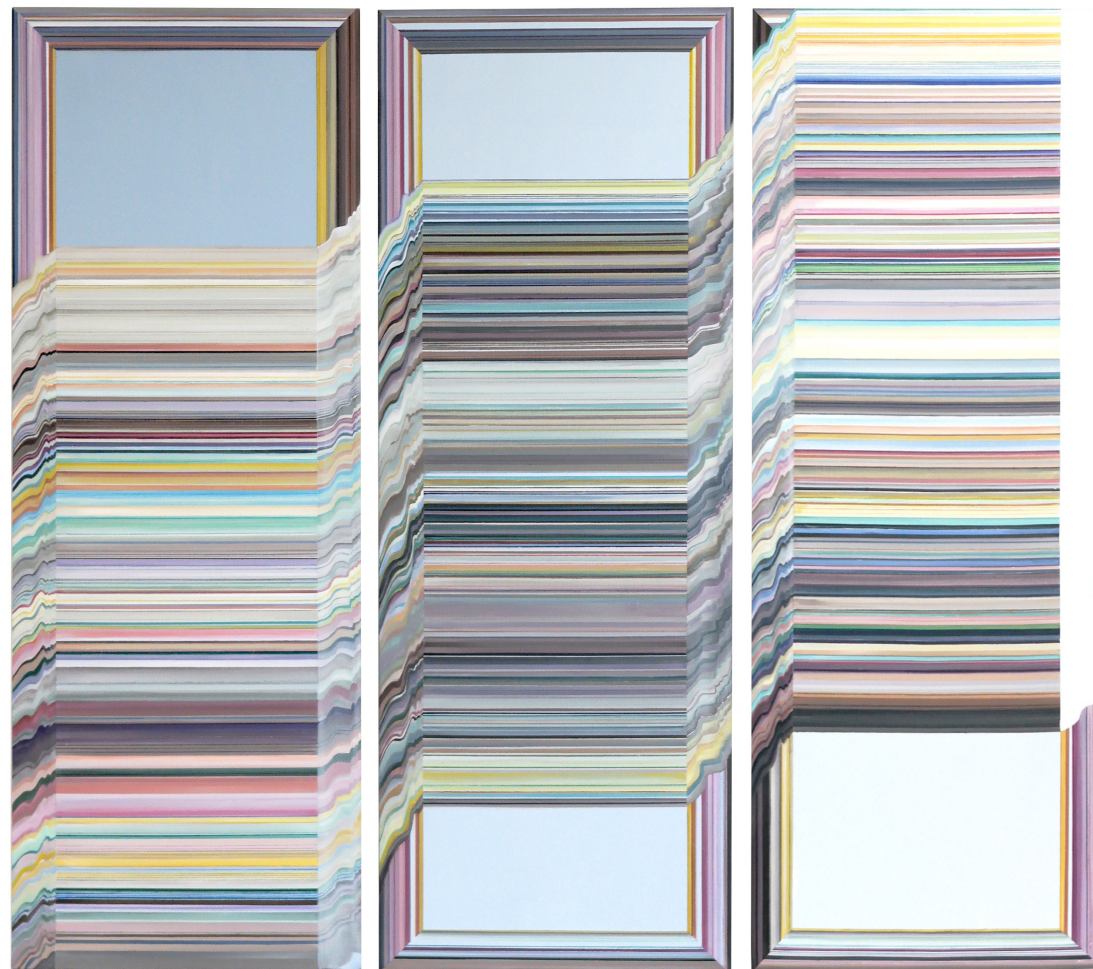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김종2와 관객들》(서진아트스페이스, 2024), 《순간의 고백》(우민아트프로젝트 스페이스, 2021) 등이 있으며, 《비워지고, 채워지는》(성남 큐브미술관, 2025)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박경은 추상적인 ‘공간’이 구체적이고 감정이 깃든 ‘장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회화의 조형 언어로 시각화한다. 장소에 대한 기억은 결국 그곳에서의 만남, 경험,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러한 심리적 흔적을 무의식 속에 축적된 풍경으로 형상화한다. 사람들의 존재를 ‘색을 남기며 지나가는 선’으로 비유하며,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편집과 조합을 통해 추상적 풍경을 재구성해낸다.

마린시티 1로 51-1
110x130cm, Acrylic and Hand made Acrylic on canvas, 2024

60



61

필동로 8길 22-1
110x130cm, Acrylic and Hand made Acrylic on canvas, 2024

필동로 8길 22-1



박두리는 감정과 몽상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바라보며, 파편화된 감정을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회화를 전개한다. 특정 사건의 서사보다는 언어로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감정의 한계에 주목하고, 그 틈에서 작동하는 내면의 감각과 매커니즘을 시각화하는데 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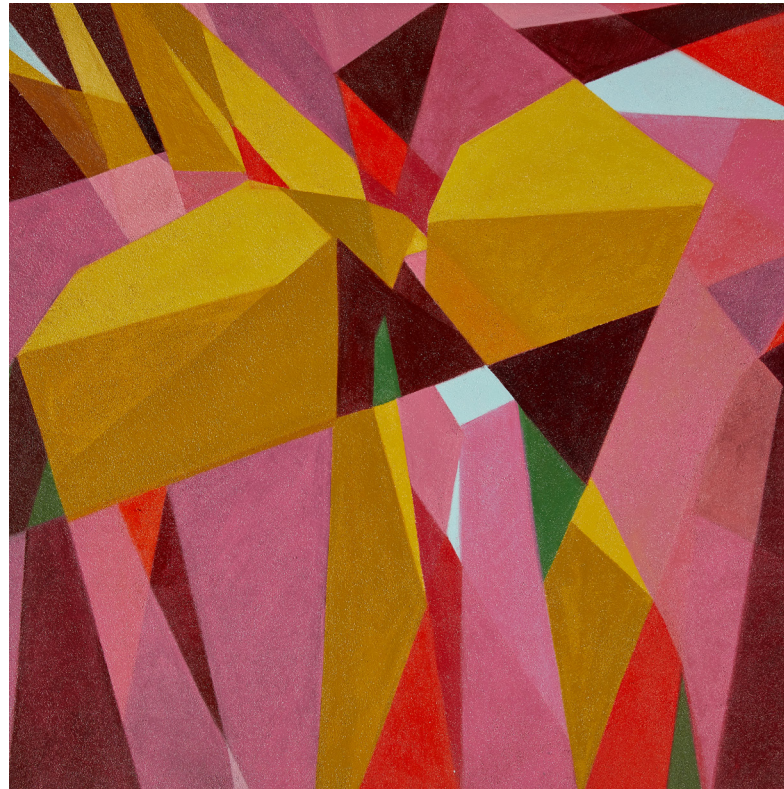


박민선

Park, Minseon

b. 1997

주요 개인전으로는 《TABLEAU》(TYA 갤러리, 2024)가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BLOOMS SQUARE》(코너스퀘어, 2024), 《청년예술상점》(한가람미술관, 2021) 등이 있다.



박민선은 유화를 중심으로 난초와 종이접기를 주요 소재로 삼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종지와 캔버스라는 서로 다른 물성을 결합한 표현 방식을 통해 회화의 경계를 확장하고, 시각적이면서도 촉각적인 감각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한다. 형식과 내러티브 사이의 조화를 고민하며, 각 재료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SSAY 5
72.7x72.7cm, oil on canvas, 2024

64

65

ESSAY 6
72.7x72.7cm, oil on canvas, 2024

ESSAY 7
72.7x72.7cm, oil on canvas, 2024

박소현A

Park, Sohyun

b.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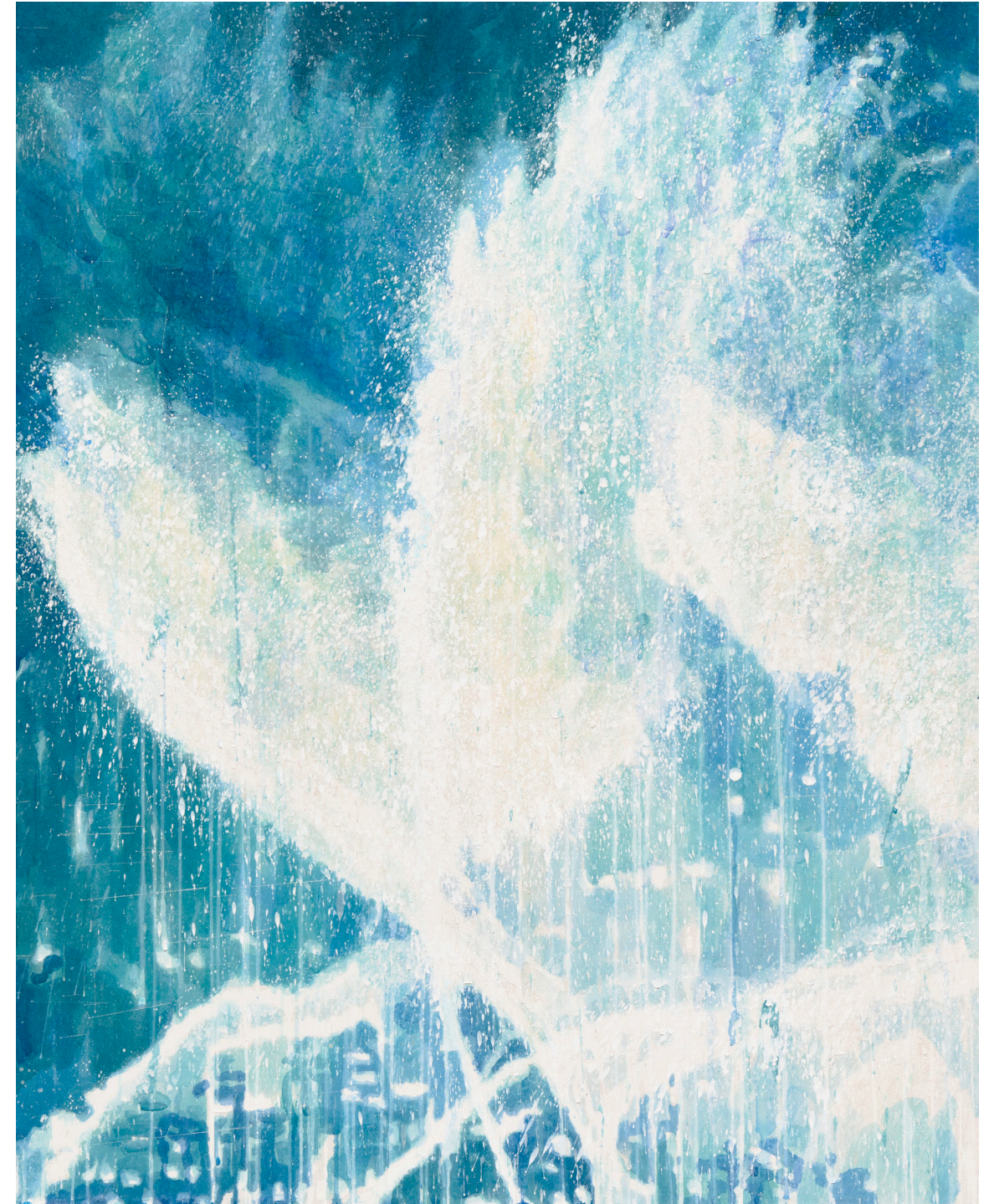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 《하얀 밤 그리고 날개》(새공간, 2023), 《따뜻하게 얼리기》(미학관, 2023) 등이 있으며 《다시 그린 세계: 한국화의 단절과 연속》(일민미술관, 2022)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박소현은 물이 있는 풍경을 통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움직임과 그 사이의 감각을 회화로 표현한다. 변화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잠시나마 형태를 부여하되,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곧 사라질 움직임을 담아내는 그의 회화는 존재와 부재 사이의 감각을 탐색한다.

floating fountain #112 — summer haze
72.7×100cm, 순지에 채색, 2024

66



floating fountain #97 — wings
90.9×72.7cm, 순지에 채색, 2023

67

박소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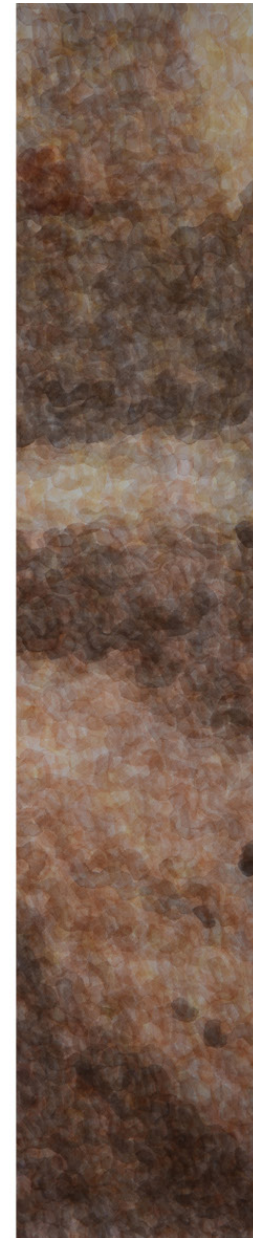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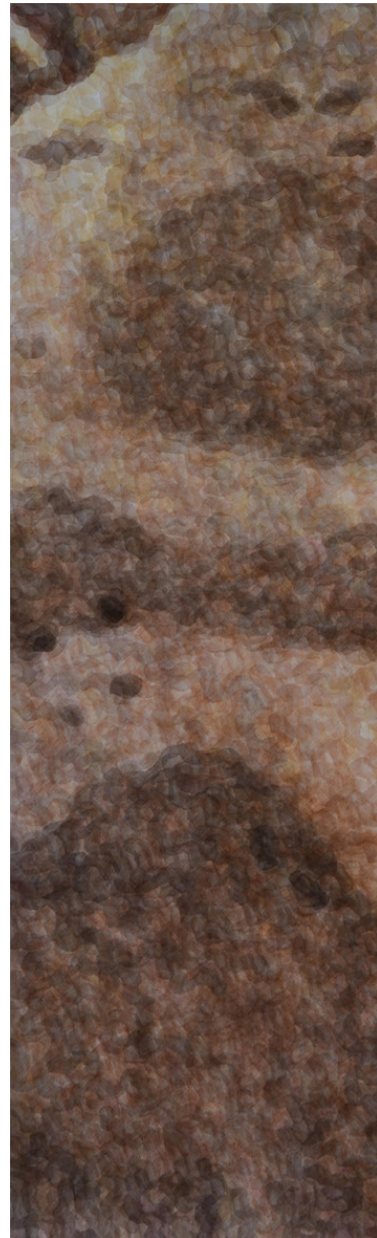
Park, Sohhyun

b.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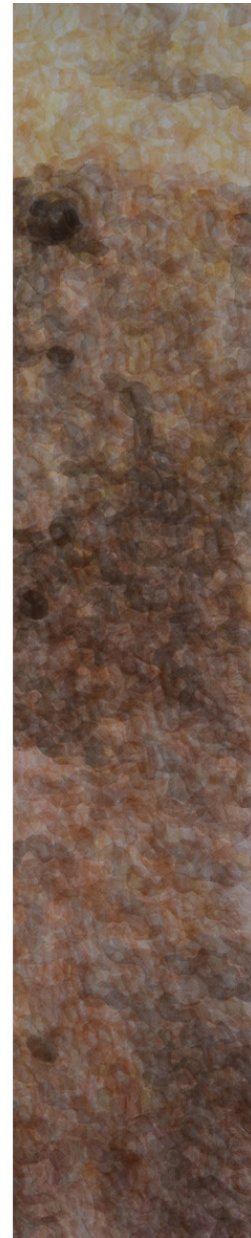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 《시간 변화》(생활지음 갤러리, 2024), 《부분의 부분》(아트스페이스풀, 2023) 등이 있으며, 《新산해경: 오래된 미래》(시안미술관, 2024), 《반아호연》(소대현·호연재 고택,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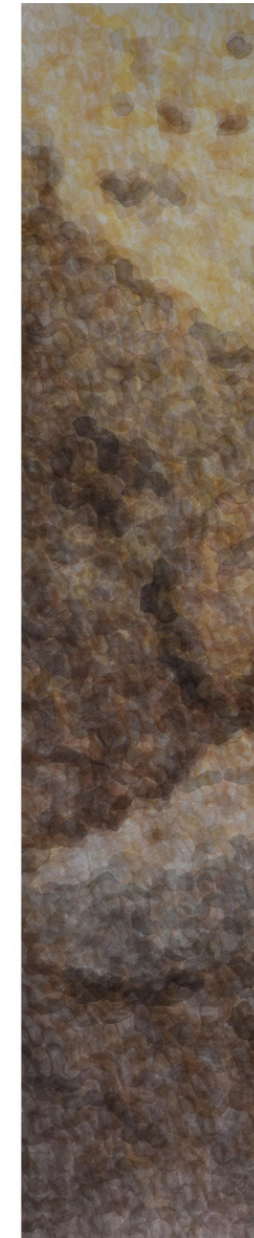
박소현은 드로잉을 기반으로 평면 회화와 설치 작업을 통해 이미지의 확대와 확장을 실험하며, '보는 것'과 '인지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탐구한다. 이미지의 확대와 축소의 과정을 통해 시각과 인식의 차이를 실험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시각적 편견을 재구성하거나 해체하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68



69



Vertical Windows 25
100x20cm, 100x30cm, 종이에 과슈, 2022

박용화

Park, Yonghwa

b. 1983

주요 개인전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이응노미술관M2, 2023), 《진열된 그들의 표정》(인디프레스, 2023)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은 《질문하는 그림들》(소다미술관, 2022), 《미술원, 우리와 우리사이》(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21) 등이 있다.



박용화는 유목적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감각과 태도를 작업에 투영한다. 그는 관찰과 반복을 통해 공간을 환유하거나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며, 통념을 전복하고 현대 사회의 이중성과 불안을 드러낸다. 동물원과 정육점의 기억을 재조합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도구의 관계를 낯선 방식으로 서사화한다.

진열된 도구
45x45cm, Oil on canvas, 2024



무생물이 놓인 공간
91x116.8cm, Oil on canvas, 2023

백종하

Baik, Jongha

b. 1989

주요 개인전으로는 《중하로운그림전》(안양시북합문화관갤러리, 2024), 《좋아서 그려봄》(봄갤러리, 2021) 등이 있으며 《장애인문화예술축제Hug》(청와대 춘추관, 2024), 《인천아시아아트쇼2022》(송도컨벤시아,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백종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지닌 작가로, 어릴 적 한자모양에 매료되고 서예작업으로 선(線)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작가는 빠른 속도의 드로잉작업으로도 대상을 균형감 있게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작가는 즐겨보는 다양한 영상 속의 캐릭터와 자연환경의 모습을 함께 구성한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동화와 애니메이션이 연출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

무적의 우리친구
72.7x60.6cm, Acrylic on canvas, 2024



72

73

좋아서 그려봄 #2
45.5x53cm, Acrylic on canvas, 2024

서해영

Seo, Haeyoung

b. 1983

주요 개인전으로는 《조각가를 위한 생츄어리1》(서울교육대학교 샘미술관, 2022), 《보이지 않는 경계 잇기》(수림아트센터, 2020) 등이 있으며, 다수의 단체전 참여와 함께 제 36회 김세중 청년조각상(2025)과 제 2회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2023)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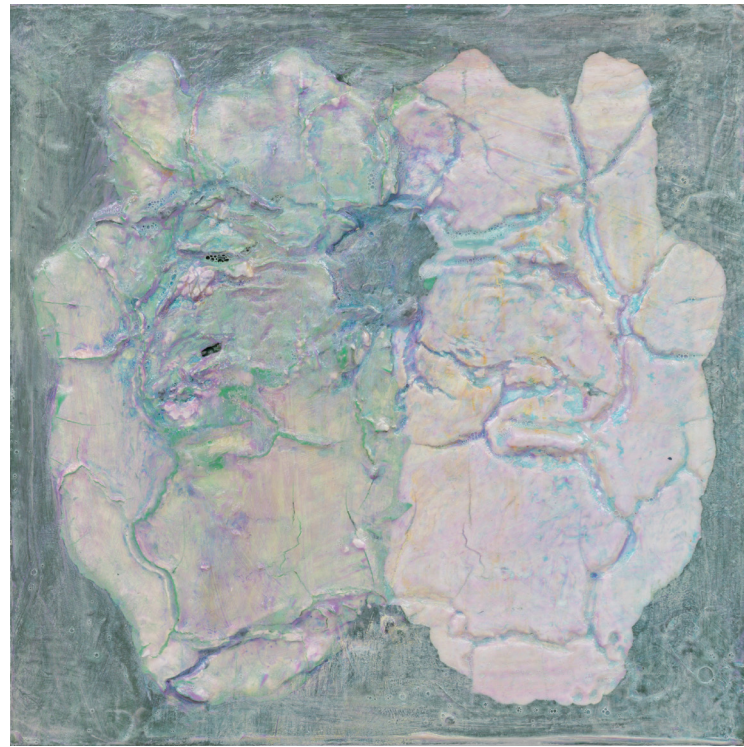
서해영은 조각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매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왔다. 여성이자 조각가로서, 자신의 구체적인 조건과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 조각’을 시도하며, 일상과 예술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조각의 방법론을 도시의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참여적 예술로 확장하고 있으며, ‘만들기’를 통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공유하는 방식을 탐구 중이다.

석지아

Suk, Jia

b. 1999

《2024 On Boarding》(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24), 《The shells of O》(레이프프로젝트 서울, 2024), 《O의 부재》(플레이스막 3,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석지아는 신체를 사용하여 화면과 물질을 주고 받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유도한다. 페인트나 아크릴 물감을 두껍게 쌓아 균열과 물감 층을 만들고, 그 위에서 젤 미디엄으로 드로잉한 덩어리를 떼었다 붙이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구축한 화면과의 관계를 타자와의 관계로 은유하며, 물성과 형태의 변화를 통해 감정과 기억을 담아낸다.

Heartbeat, 15x15cm
패널에 아크릴, 페인트, 젤미디엄, 2024

76



호르는 섬
162.2x130.3cm, 패널에 아크릴, 페인트, 석고, 젤미디엄, 2024

77



손모아는 대중매체에 의해 재현된 이미지로서의 기억을 핵심 주제로 삼아 작업한다. 나무, 풀, 하늘, 물의 곡률을 단순화하고 확대하여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기억 속 환상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함축해 낸다. 이처럼 구성된 풍경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실제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상상의 유희로 가득한 장면이다. 시각적으로 함축하여 표현한 작품은 디자인적 요소와 풍경적 요소처럼 이질적인 시각 요소들을 병치시켜 긴장을 유발하지만, 색과 구성을 통해 이러한 긴장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한다.



송상원

Song, Sangwon

b. 1988

주요 개인전으로는 《자연아 놀자》(마루아트센터, 2024), 《이무기라도 관찰아》(상상숲, 2023) 등이 있으며, 《아트락페스티벌》(예술의전당,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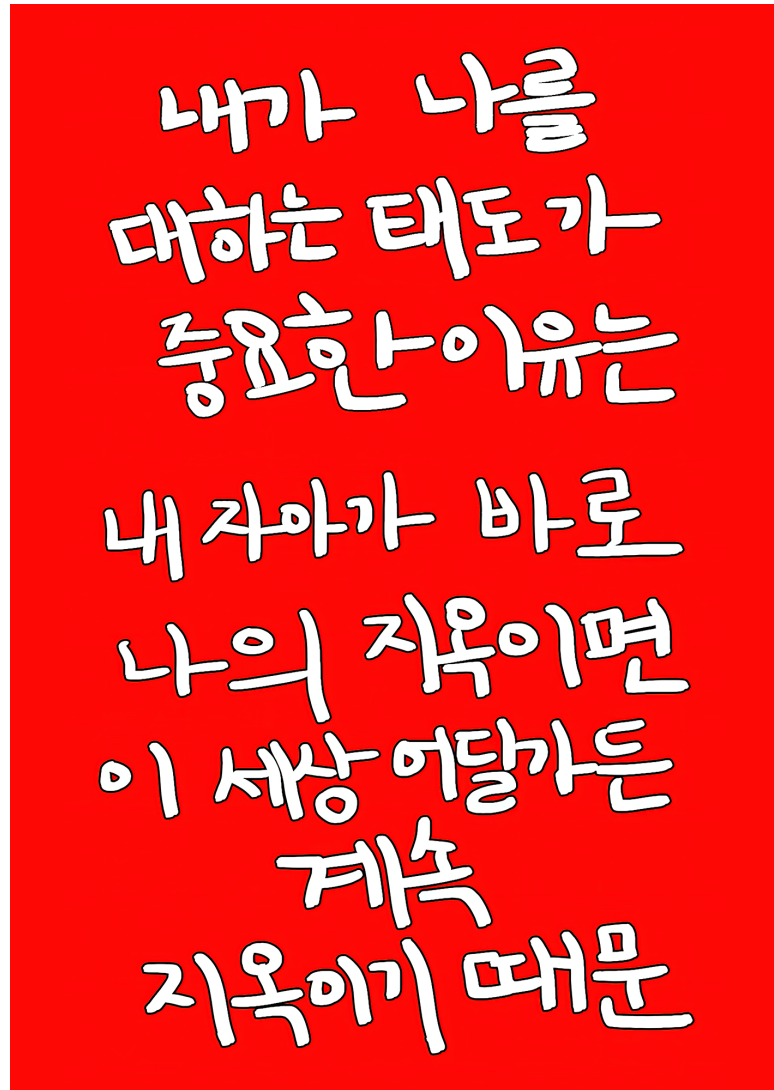


송상원은 말보다 그림으로 먼저 세상과 소통을 시작한 작가로, 작업은 곧 그의 존재이자 삶이다. 호랑이, 용, 까치 등 민속적 소재와 환경 이슈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며, 작고 보잘 것 없는 생명체도 지구의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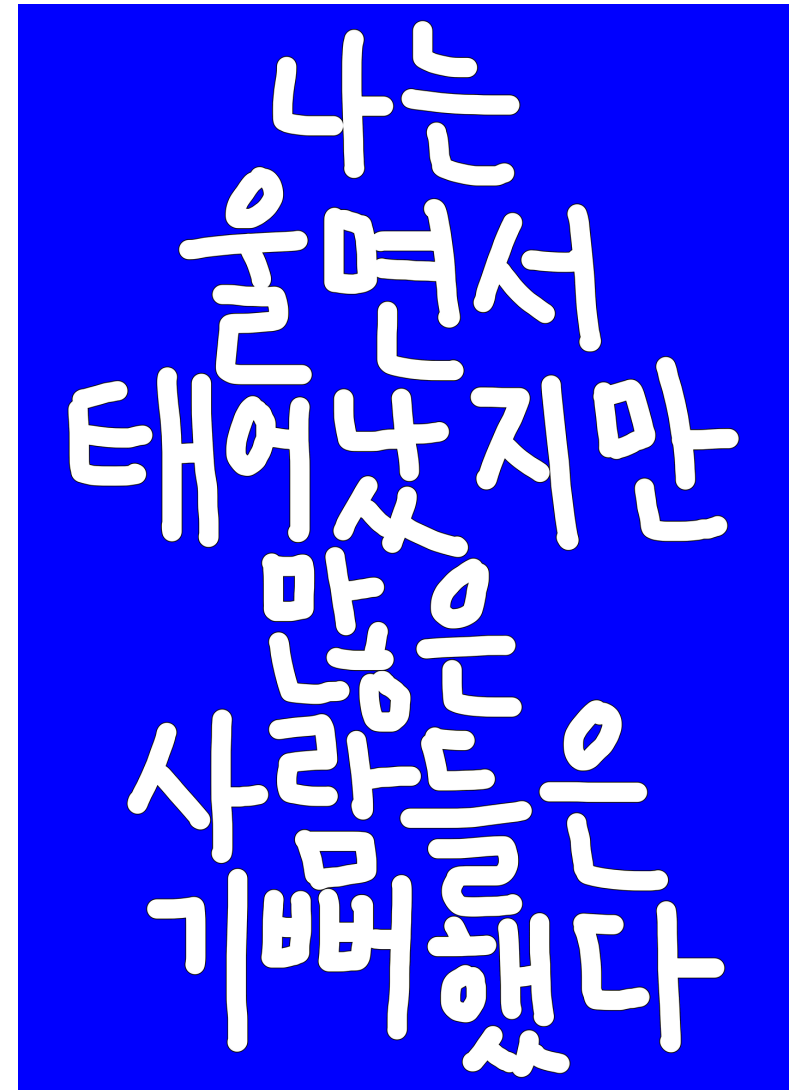
칼라릴리1
65.1x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24



숲속의 작은 친구들
60.6x72.7cm, 캔버스에 아크릴, 2022



안성석은 사진, 영상, 3D 모델링, VR, 게임 엔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가상과 실재를 넘나들며 시공간을 재조합하고, 장소에 축적된 시간성과 존재의 흔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화두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극복과 실천 가능성을 모색한다.



연호석

Yeon, Hosuk

b. 1996

주요 개인전으로는 《Colors in me》(아트gg갤러리, 2024), 《숲 속에 빛》(밀알미술관, 2022) 등이 있으며, 《장애인문화예술축제 Hug》(청와대 춘추관, 2024), 《특별한 선물》(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연호석은 색채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작가로, 자연의 빛깔에 자신의 감정을 더해 독창적인 색과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대상의 재현보다는 순간의 감성을 빠르게 포착해 선과 면으로 단순화하며, 세련된 색감과 울동감 있는 선으로 화면을 채운다.

Fly altogether
46x53cm, Acrylic, oil pastel on canvas, 2022

84



Let's play 1
53x46cm, Acrylic, oil pastel on canvas, 2024

85

오승식

Oh, Seungsik

b. 1998

주요 전시로는 개인전 《꿈속 이야기》(군포시생활문화센터, 2023)와 단체전 《예담화경》(모두미술공간, 2025), 《수리산의 꿈전》(군포문화예술회관, 2024) 등이 있다.



오승식은 회화와 시를 병행하며, 감정과 영감을 사물에 투영해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그림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와 함께 감상하면 작가의 꿈과 고뇌, 사랑이 전해진다. 꽃, 나무, 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면과 배경은 복잡한 패턴과 다채로운 색연필로 채워진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소외 없는 세계를 그린다.

사랑의 눈물
52.6x40.7cm, 종이에 색연필, 2023

86



슬픈 별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75x56cm, 종이에 혼합재료, 2024

87

용하현

Yong, Hahyeon

b. 1996

주요 개인전으로는 《End, And》(창작스튜디오 131, 2024), 《사라지다;살아지다》(엄미술관, 2023) 등이 있으며, 《겹쳐진 자리》(동탄아트스페이스, 2025),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문화역 서울 284, 202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용하현은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지리적 요건에 따라 장소의 공간과 기억, 흐름을 담아낸다. 사라지고 있는, 이미 사라진 곳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우리)의 모습을 풀어내며 변화하는 현장의 모습과 과거의 기억 속 모습을 중첩 기록한다. 작업을 통해 흐르는 시간을 대면시키며 과거의 시절을 통해 미래를 향해 더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탐구한다.





유은석은 현대사회에서의 경쟁이 지닌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며, 경쟁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스포츠 공이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통해 조형화한다. 역동적이고 팍적인 조형 언어로 이를 표현하며, 시각적으로 즐거운 형태 속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다. 현재 경기도 양주시 장흥 가나아뜰리에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Dream Car-Silver
10x31x17cm, 레진, 우레탄도장, 2024



CAT Tower
40x30x30cm, 레진, 철, 우레탄도장, 2024

주요 개인전으로는 《덩어리모서리 소리》(스텔라갤러리, 2024), 《Linear A》(The Store, 2023) 등이 있으며, 《공명의 순간들 III》(두인갤러리, 2024), 《Extraño, Llano, Vacío》(스페인 Galleria Han-ul, 2010) 등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이다는 회화의 물성과 추상 이미지의 관계에 주목하며, 현실을 함축하고 변형한 추상회화를 선보여왔다. 고대 문자의 기호와 암각화를 참조한 'Linear A' 시리즈와 'Proto-Painting' 연작을 통해,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취인 불명 이미지'의 본질을 탐구한다. 밀납 재료를 활용한 작업은 시각적·물리적 층위를 형성하며, 감상자의 인식과 해독 과정을 자극한다.

Proto 1942
180x130cm, Oil & beeswax on panel, 2024



Proto 2132
180x130cm, Oil & beeswax on panel, 2024



Proto 2135
180x130cm, Oil & beeswax on panel, 2024

이립

Lee, Leap

b. 1990

주요 개인전으로는 《KEEP IT UP》(HALL1, 2023), 《Let me C》(SAPY, 2022) 등이 있으며, 《ZIP(집)》(아르코미술관, 2024), 《비;서울》(광명시청년동, 202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이립은 중력을 따라 재료를 지면에서부터 쌓아 여성 인체상을 구축한다. 중심축을 벗어나 다수의 구심점으로 구조를 지탱하며 무게중심을 분산시키고, 골조와 덩어리를 혼합해 유기적인 형태를 만든다. 무너짐과 쓰러짐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제약과 한계를 즐기며 유연하게 중심을 잡는다.

CORE-(A-175)-I
185x150x110cm, 석고, 마닐라삼, 목재, 수채화물감, 2023

CORE-(A-175)-V
195x165x115cm, 석고, 마닐라삼, 목재, 수채화물감, 2023.jpg

94

95

CORE-(B-110)-I
134x56x60cm, 석고, 마닐라삼, 목재, 수채화물감, 2023

이승연

Lee, Seungyoun

b. 1982

주요 개인전으로는 《EPIC: 다섯 개의 판》(금호미술관, 컴바인웍스 2025), 《신세계환상곡》(수림아트센터, 2020)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우리를 바꾸는 다섯가지 대화》(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25), 《다섯 발자국 숲》(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어린이미술관, 2024) 등이 있다.



이승연은 '이야기'의 힘을 믿으며 고대사, 신화, 상상 속 기이한 이야기들과 여행에서 발견한 서사를 수집하고 변형하여 작품으로 풀어낸다. 미래의 '채색 필사가' 또는 '스토리텔러'를 꿈꾸며, 드로잉을 중심으로 설치, 영상, 판화, 그림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각적 서사를 구성한다.



이재명

Lee, Jaemyung

b. 1981

주요 개인전으로 《현혹되고, 그려지고, 가려지는》(오분의일, 2024), 《사물의 리듬》(밤부갤러리, 2020) 등이 있으며, 제4회 포스코미술관 신진작가 대상(2017), 금호영아티스트(2010)에 선정되었다. 또한 난지 및 금호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이재명은 인공적 사물의 현실 상태와 잠재적 차원의 다양성에 주목한다. 그는 사물의 전체는 항상 지각되지 않은 무언가와 함께한다고 보고, 정지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이미지를 수집해 정보를 가리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회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블럭블럭
130.3x162.2cm, oil on canvas, 2020

98



99

트라이앵글
72.5x60.5cm, oil on canvas, 2020



이채민은 신체가 먼저 감지한 감각의 진동과 그로부터 파생된 감정의 충동을 회화 이미지로 옮겨낸다. 사고보다 앞선 신체의 움직임과 축적된 감정의 밀도를 시각적 흐름으로 표현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과 양가적인 느낌을 반복되는 제스처와 선을 통해 응축한다. 작업은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신체에 접착된 감각이 새로운 감정의 질서로 드러나는 과정을 기록한다.



하늘높이 넘어서
53x43cm, 캔버스에 유채, 2023



hiding
90.9x90.9cm, 캔버스에 유채, 2025

이현지

Lee, Hyunji

b. 1987

주요 개인전으로는 《멀리 더더더더》(공간 황금향, 2022), 《오아시스, 유리, 벽돌》(위켄드, 2018) 등이 있다.



이현지는 일상의 물질과 풍경을 각각 고유한 존재로 인지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주변의 사물들과 비물질적 요소들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대상이 지닌 고유의 의미는 지워지고 형태와 감각만이 남는 순간에 주목한다. 작가는 시간과 공간 속 유동적인 존재로 변모하는 대상들을 관찰하고, 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조형 언어로 풀어낸다.

먼지 별2
21.5x16x3.3cm, 나무, 블루프린팅 잉크, 2022

먼지 별3
21.5x16x3.3cm, 나무, 블루프린팅 잉크, 2022

102



103

먼지 별1
21.5x16x3.3cm, 나무, 블루프린팅 잉크, 2022

임경식

Lim, Kyungsik

b. 1977

주요 개인전으로는 《입으로 그려낸 꿈의 세계》(참살이 미술관, 2025), 《희망 그리고 꿈 감동콘서트》(인천 남동구청 대강당, 2024), 《2023 대한척수협회 초대전》(서울대병원, 2023) 등이 있으며, 다수의 구축회화 및 장애예술 관련 단체전에 참여하고 있다.



임경식은 1995년 교통사고로 중도장애를 입은 후, 입으로 그림을 그리며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림을 통해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았다. 손이 아닌 입으로 그리는 작업은 그에게 성취감과 자립의 의미를 안겨주었다.

결실
45.5x60.6cm, 캔버스에 유채, 2019



행복한 속담
91x116.8cm, 캔버스에 유채, 2021

임수식

Lim, Soosik

b. 1974

《책가도》(삼성R&D캠퍼스, 2023), 《Chaekgado》(스페인 Galería Saro León, 2022) 등 20여 회의 개인전과 1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미사진미술관, 이랜드문화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임수식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선후기 회화 양식인 책가도를 현대 사진으로 재해석해 보편적 욕망과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해왔다. 다양한 사람들의 책장을 촬영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의 취향과 관심, 삶의 흔적을 시각화하며, 이를 문화적 상징의 집합으로 제시한다.

책가도487
110cmx170cm, 프린트된 한지에 손바느질, 2024

106



107

책가도486
100x67cm, 프린트된 한지에 손바느질, 2025

임승균

Lim, Seungkyun

b. 1984

주요 개인전으로는 《발음되지 않는 시》(일본 Koganecho Mini Residency C, 2025), 《Already Here》(대전예술가의 집, 2024) 등이 있으며, 《Sister City Brother Project》(일본 500m갤러리, 2024), 《Tide Pool》(오산시립미술관, 202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임승균은 일상 속 낮은 곳에서 발견되는 물질과 현상, 상태에 주목한다. 그는 '세계 속 노이즈(noise)'처럼 단절과 파편을 기반으로 사건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실험적 접근을 통해 일상의 연속성을 끊고 그 단면을 들여다보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임혜지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슬픔, 안정과 회복 같은 다층적인 감정을 바라보며, 내면의 진동을 회화로 기록해 나간다. 자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의 결들을 상징적인 이미지로 시각화하며, 고요함 속에 파동이 깃든 화면을 구성한다. 무거우면서도 떠오르는 듯한 감정의 흐름은 확정할 수 없는 감정의 층위를 드러낸다.

흔들리는 덩어리
38x45.5cm, 캔버스에 유채, 오일파스텔, 2025



횡행하는 말들
33.4x24.2cm, 캔버스에 유채, 2024

장양희

Chang, Yanghee

b. 1976

주요 개인전으로는 《사이 공간》(갤러리 더플로우, 2025), 《EngraBeing_새김:흔적》(스페이스 업, 2024) 등이 있으며, 《판화 페어》(쿠바 산타 이사벨 미술관, 2025), 《Reflections Across Borders》(대만 가오슝 문화센터, 2025)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와 함께 2024 겸재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장양희는 ‘새김’이라는 방식을 통해 실존적 정서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 이미지를 담은 종이 위에 레이저로 인물 형상을 새겨, 존재와 부재 사이의 경계에 놓인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실체 없이 비워진 듯한 형상은 공허함과 무상함, 고독을 환기하며, 인물은 고립된 존재로서 정서적 여운을 남긴다.



정연지는 자연을 생명력과 끈기, 힘의
원천으로 바라보며, 그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작고 유한한 존재를 작품 속에
담아낸다. 자연 속 경험에서 얻은
에너지를 통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위로를 시각화하며,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조형적으로
풀어낸다.



정정호

Jung, Jungho

b.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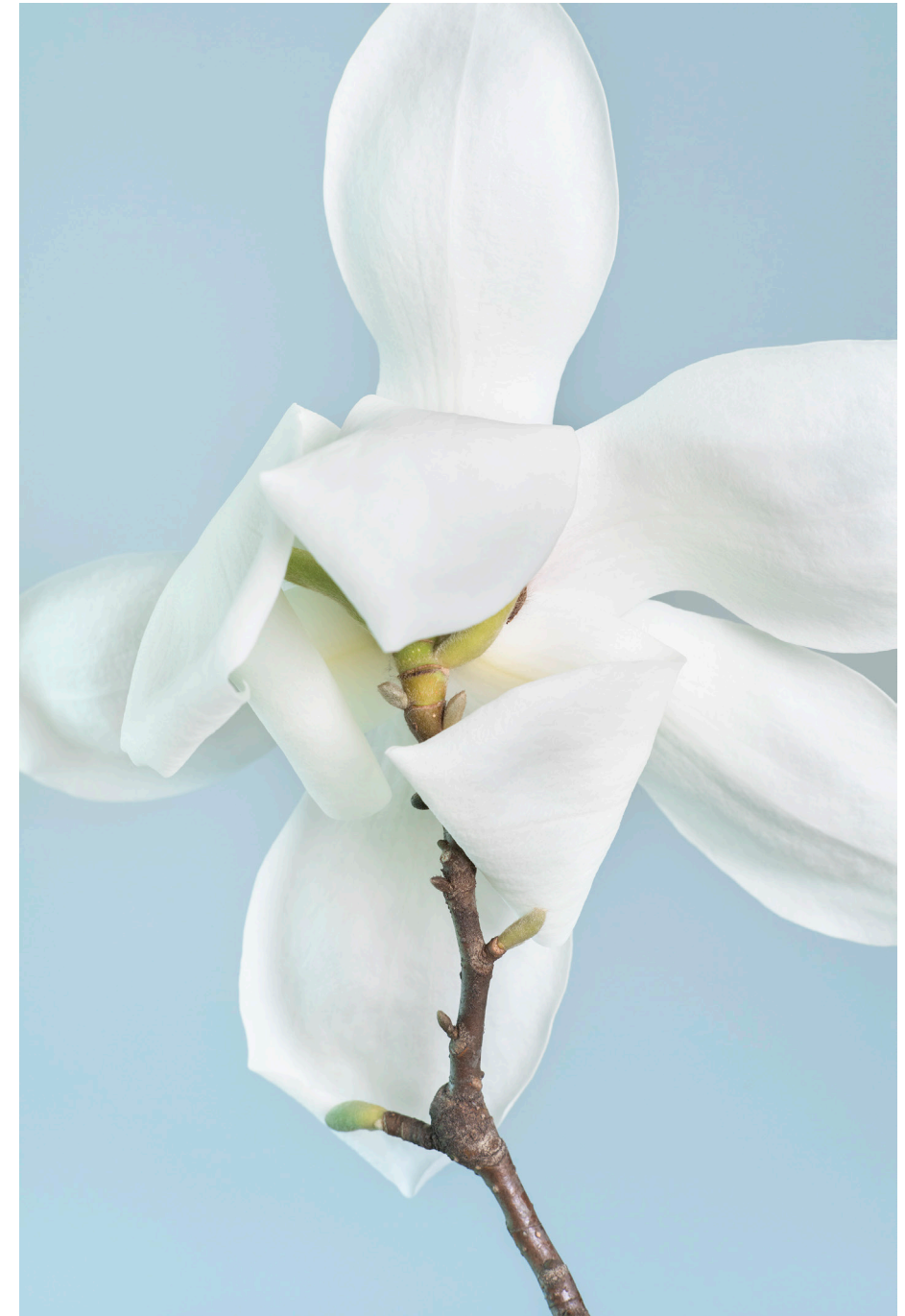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믿음의 지형학》(금천예술공장, 2024)이 있으며 《특별할 것》(청주시립미술관, 2025), 《공존》(미텔라인미술관, 독일, 2024), 《정착세계》(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2), 《보존과학자 C의 하루》(국립현대미술관, 202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정정호는 개발과 변화로 드러나는 도시의 구조와 장소에 얽힌 설화, 신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며 장소성과 믿음의 관계를 탐구한다. 현대 사회에서 장소에 대한 믿음이 이미지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최근에는 한국신화 속 여신과 터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Magnolia kobus #3
100x150cm, Archival Pigment Print, 2022

116



Magnolia Kobus #1
150x100cm, Archival Pigment Print, 2022

117

조미예

Cho, Miye

b. 1982

주요 개인전으로 《식물행성》(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2024), 《부여된 생》(갤러리 아리아, 2022)이 있으며, 《Weedrium; 쓸모의 이동》(경기상상캠퍼스, 2024), 《Ghost Ecologies: Hidden Kinship》(미국 SVA 뉴욕,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조미예는 유전적 질환, 질병, 자연재해, 생태계 위기 등 인류와 자연을 둘러싼 문제를 생물학적·생명공학적인 접근으로 탐구하는 시각예술가다. 세포, 바이러스, DNA 등 미시적 생명 요소를 분석하며 재난과 재앙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2019년 국제 바이오아트 공모전 대상 수상 이후, 2022년 뉴욕 바이오아트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활동을 확장했다. 2024년 아티언스 대전에 선정되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업활동을 해왔으며, 2025년 10월 결과보고전을 앞두고 있다.





조채임은 ‘바다’를 통해 에너지와 힘의 본질을 회화로 풀어낸다. 주로 해 뜨는 새벽의 바다를 표현하며 낮고 높은 파장과 파동이 주는 자연의 힘을 한 번의 터치로 담아낸다. 멀리서 보면 평온하고 푸른 봄날 같은 삶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듯, 작품에서 표현하는 바다도 시각적 착시를 활용해 삶의 이면을 표현하고 있다.



최명은

Choe, Myung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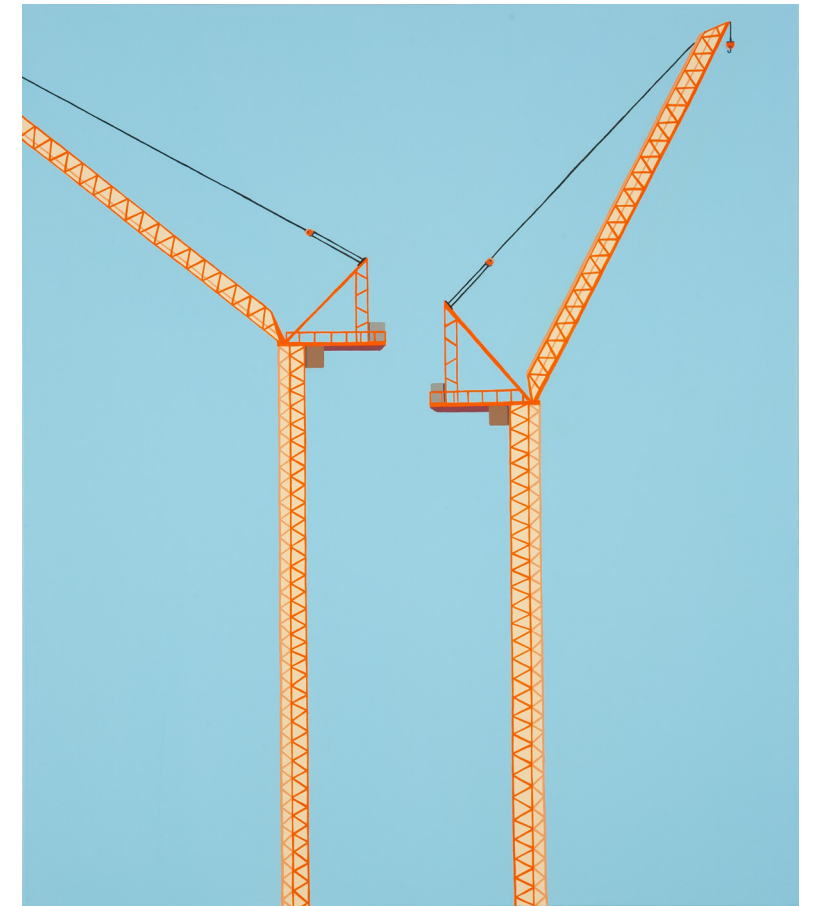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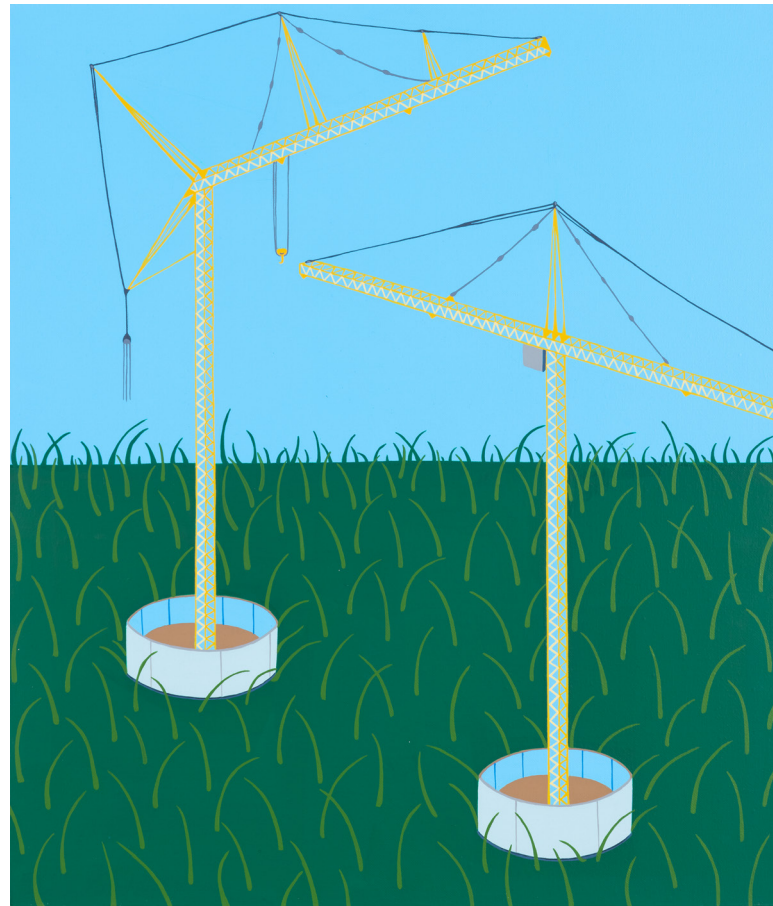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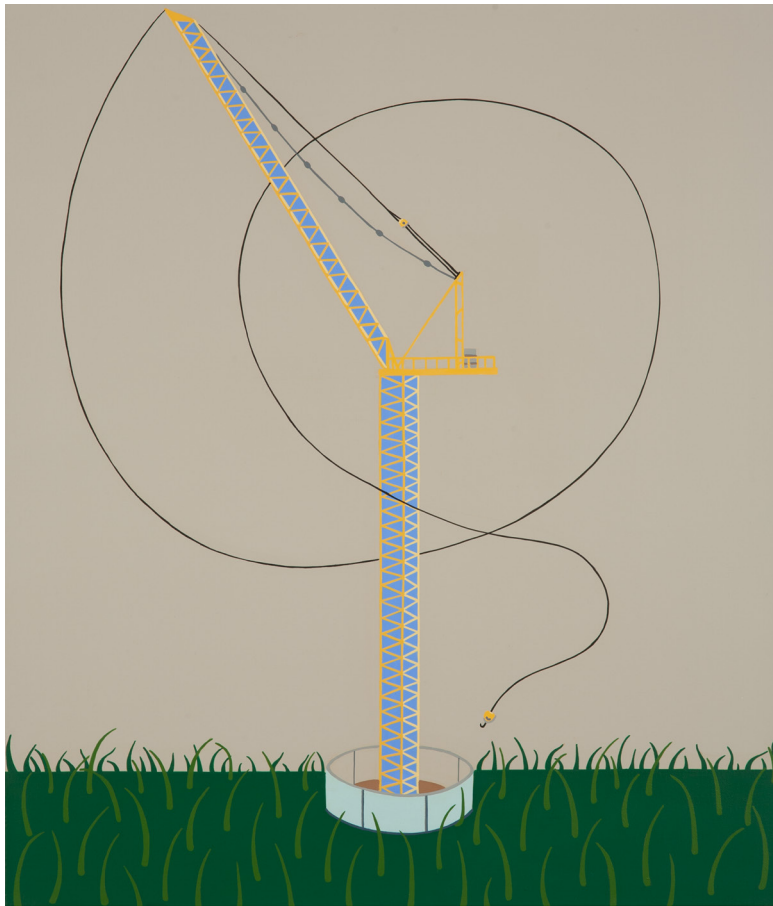
b. 2002

주요 개인전으로는 《바람》(고양 아람누리 갤러리누리2, 2020), 《내 마음이니까》(아람누리 갤러리누리2, 2017) 등이 있으며, 《팔레트: 우리가 사는 세상》(소다미술관, 2024),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강릉아트센터,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명은은 사춘기 시절 우연히 그림을 시작하며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었다. 내면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는, 사랑하는 친구들, 외로움, 즐거움 등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회화로 풀어냈다. 15살에 열린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그림은 그의 삶이자 기쁨이 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유희는 신도시의 생경한 풍경에서 인간의 욕망과 그 허상을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창조성과 생명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과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그의 작업은 무성하게 자란 풀, 어딘가 불균형한 신도시의 풍경 등 파편적인 이미지를 통해 인간이 신의 영역을 모방하며 만들어낸 현실과 환상을 드러낸다.

Every day Every moment_New City
53x45.5cm, acrylic on canvas, 2022

Every day Every moment_New City
53x45.5cm, acrylic on canvas, 2022

Every day Every moment_New City
53x45.5cm, acrylic on canvas, 2022

최윤지

Choi, Yoonji

b. 1988

201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공유공간》(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20), 《제 현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지 않습니다》(AG갤러리, 2024) 등 6회의 개인전과 《궤적을 연결하는 점들》(고양시립아람미술관,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윤지는 도시의 형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시스템, 노동, 사물, 삶의 흔적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다양한 시각 매체로 탐구한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면들과 오브제를 선별하고 분류하여,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도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하고도 초현실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고, 이를 조형언어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 보이지 않는 감정과 풍경들을 드러내며, 공공과 개인,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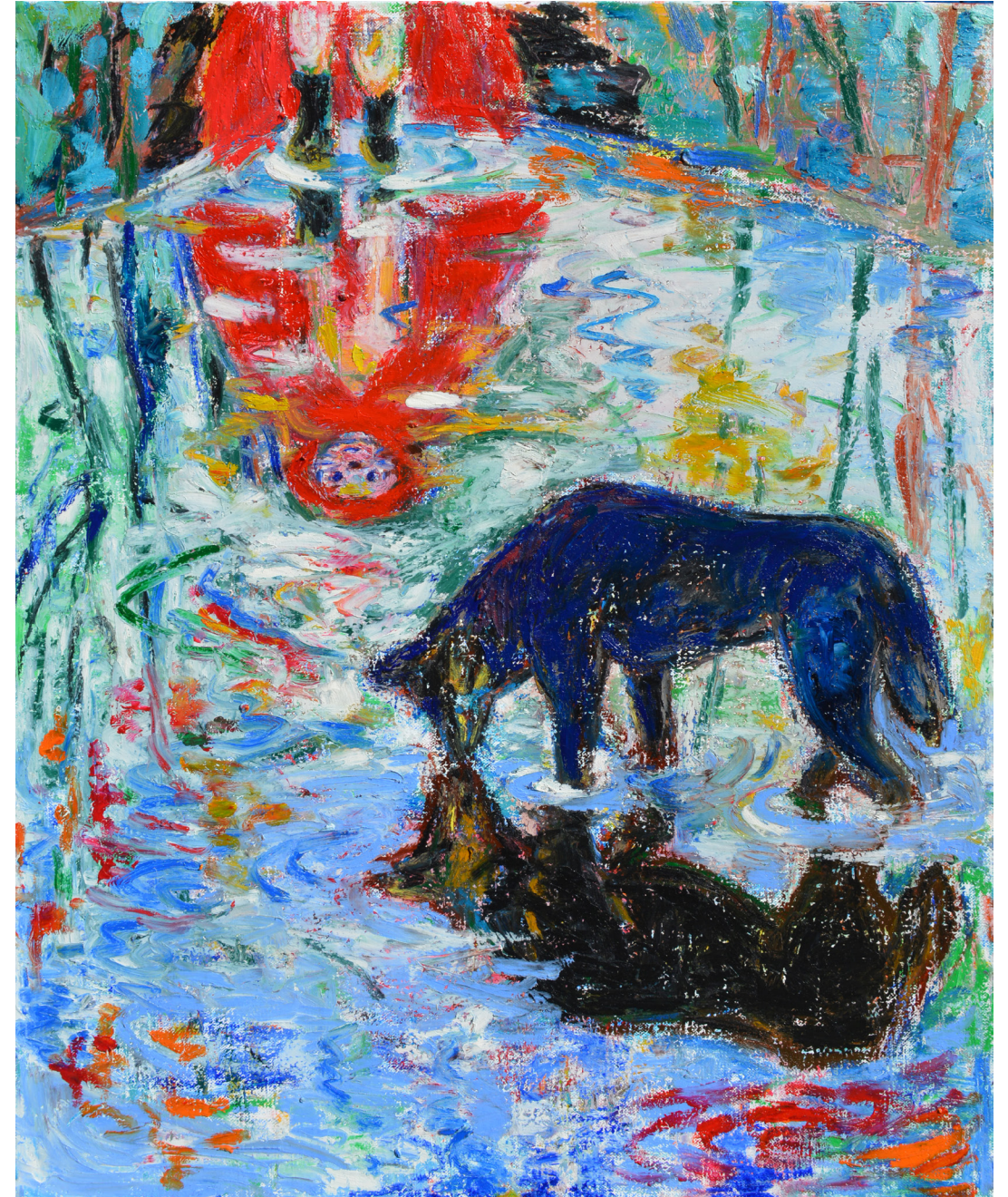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태양을 삼킨 괴물》(소노 아트 컴퍼니, 2024), 《늑대파랑》(제이콥1212 갤러리, 2022)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애도_공예적이거나 혹은 미술적이거나》(윤현상재, 2024), 《노래하는 땅》(부산현대미술관, 2023) 등이 있다. 2018년 이응노미술관 국제 파리 레지던시에 참여하였고, 2021년 강남 아트프라이즈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파랑은 자연, 동물, 인간을 통해 복합적인 감정을 회화적으로 표현한다. 어린아이와 동물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주요 모티프로 삼아,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 상처를 건디는 내면의 힘을 담아낸다. 실제적인 이미지보다는 대상 안에 내포된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를 중시하며, 서로를 감싸 안는 서사의 감정선을 그림 안에 스며들게 한다.

비 맞지마요
65x53 cm, oil pastel on canva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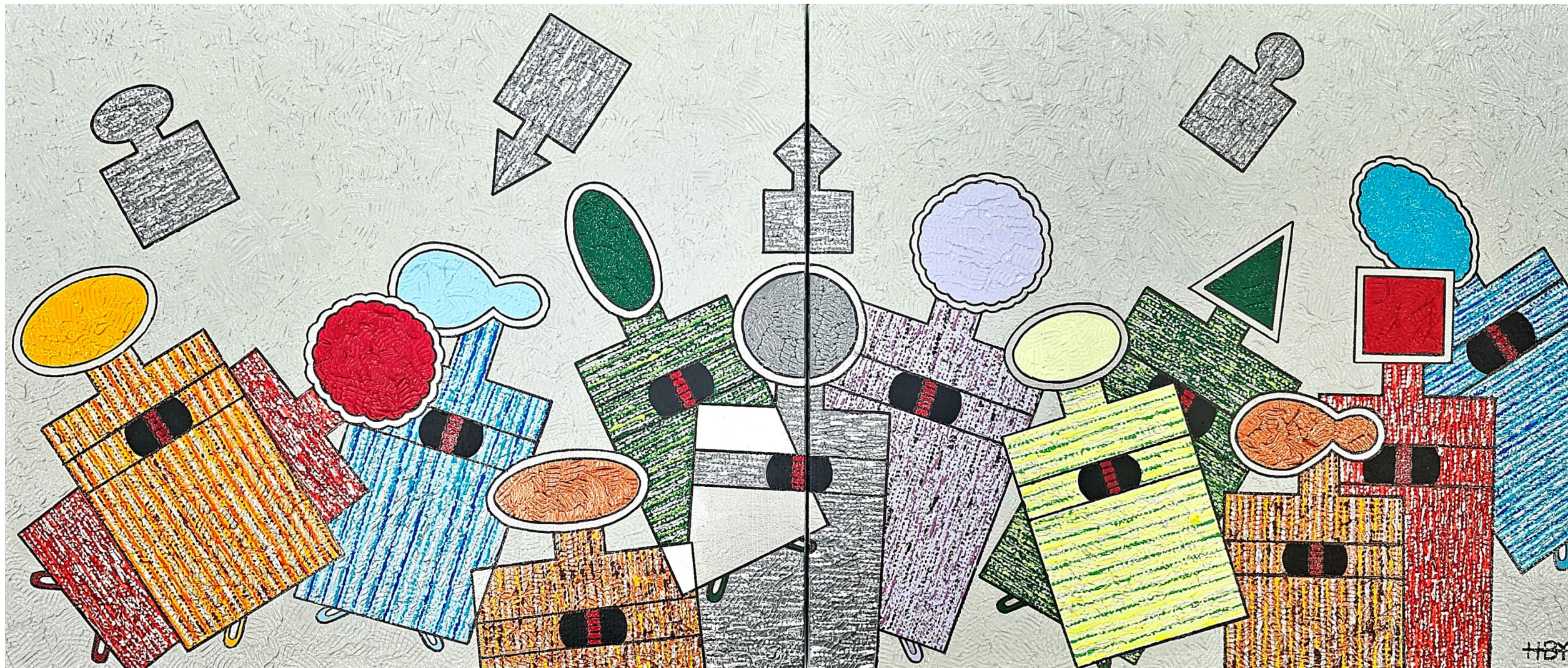
비오는 오후
65x53 cm, oil pastel on canvas, 2022

주요 개인전으로는 《There Is Not Even Silence In The Void》(오스트리아 에코 코레스펀스, 2023), 《I am the space where I am》(푸쉬 투 엔터, 2023), 《Place in Reverse》(일본 야마키와 갤러리, 2019) 등이 있으며, 《자연이 머무는 곳》(공간 미학, 2024), 《SHOW UP》(벨기에 앤트워프 현대미술관, 2023) 등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 & 모나는 도시 재개발과 인간 활동으로 생성·소멸된 건축물에 주목하며, 잊혀진 도시의 변화와 그 속의 역사를 시각화한다. 건물과 공간의 내밀한 경계에서 발견되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현대 도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록되지 못한 기억을 발굴하고 재구성한다.





한부열은 30cm 자를 이용해 마음을 그려내는 국내 1호 자페인 라이브 드로잉 작가로, 생동감 있는 인물화를 주로 작업한다. 감정을 사진처럼 기억해 표현하며, 다양한 도구로 섬세한 터치를 더해 작품을 완성한다. 작가는 평면과 입체가 공존하는 형식을 즐기며, 중첩된 장면이나 앞뒤의 모습을 동시에 표현한다.

한조영

Han, Joyoung

b. 1980

주요 개인전으로는 《텅빈풍경 Empty scene》(도로시살롱, 2017), 《on the dark》(가나컨템포러리 2012)가 있으며, 《겹쳐진 자리》(동탄아트스페이스, 2025)와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조영은 개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감각을 통해 인식된 풍경을 시각화한다. 낮설게 인식된 도시의 빛과 구조는 개인의 존재와 사회 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주체의 시선과 존재의 관계를 탐구하는 매개체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풍경과 주체, 실재와 환영,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서 존재를 감각하고 응시하는 행위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다. 특히, 회화의 방법론과 그 한계를 자각하며, 회화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와 표현의 가능성을 물질과 비물질, 실재와 환영 사이에서 모색한다.

텅빈풍경 *Empty Scene*
91x65.3cm, Printed Medium Collage, Acrylic, Varnish on canvas, 2018

134



텅빈풍경 *Empty Scene*
91x65.3cm, Printed Medium Collage, Line Tape, Acrylic, Varnish on canvas, 2017

135

한지선

Han, Jiseon

b. 1983

주요 개인전으로는 《Zitadelle》(갤러리현, 2024), 《FOREST; 至安》(이랜드스페이스, 2023) 등이 있으며, 《종이와 예술적 기억 방법》(그어떤, 2023), 《BEYOND THE COLORS》(갤러리41, 2022)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지선은 내면의 감정을 투영한 상상 속 숲 'BLUE FOREST'를 회화로 구현한다. 이 숲은 자연을 닮았지만 감정에 따라 낯선 색과 형태로 표현되며, 감정의 피난처이자 회복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감정의 본질을 담은 이 장소는 타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한여름
90x90cm, oil on canvas, 2022

136



137

Blue forest 14
135x135cm, oil on canvas, 2023

홍남기

Hong, Namkee

b. 1975

주요 전시로는 《낮과 밤》(임시공간십일, 2021), 《부유하는 시간》(갤러리조선 서울, 2017) 등이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부산 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홍남기는 고전 SF 소설과 영화에서 표현된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오늘날의 환경을 탐구하며 허구의 서사적 장치를 이용하여 급변하는 현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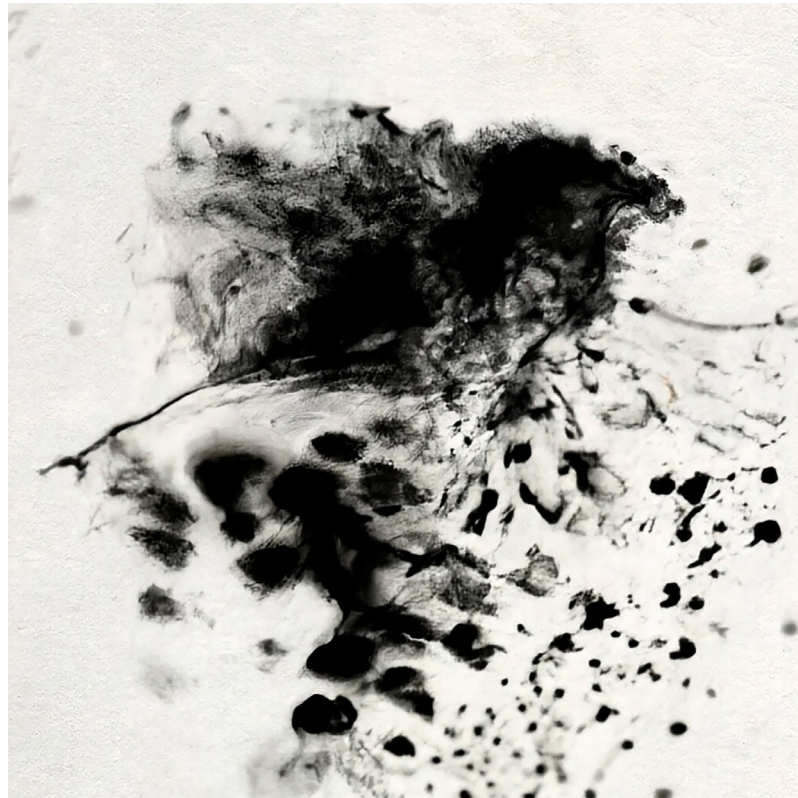


황선숙

Hwang, Sunsook

b. 1971

주요 개인전으로는 《호접몽》(경주독락당, 용담정, 2023), 《깃털 화살》(고양아람누리 내 해발이터, 2022) 등이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 단체전에 참여하고 있다.



황선숙은 수묵의 전통적 개념을 확장하며, 동양적 관점을 비디오,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미디어파사드 등 확장 매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왔다. 수묵을 비물질성과 동양의 시간 개념으로 변주하며, 최근에는 데이터 수묵 등 기술 기반 표현을 탐구하고 있다.

sumuk improvisation 23
50x50cm, 한지 위에 디지털프린트, 2025

140



141

깃털 유람3
162x130cm, 한지 위에 수묵채색, 부분 콜라주, 2022

2025
아트경기
협력사업자



미술로 Misullo

미술로 주식회사는 “예술가의 마음을 품고 미술품에 가치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설립된 온·오프라인 미술품 보관, 관리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국내 비주류 예술가의 미술품 수천만 점이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무방비, 무가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다. 이를 위해 한곳에서 보관, 관리, 상설 전시가 동시에 가능한 솔루션 <수장고형 전시관>을 통해 잠들어 있는 모든 미술품을 깨워 대중에게 선보이며 미술품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내그림>은 미술품 및 예술가 정보를 DB화하고, 예술가 및 미술품 소장자가 미술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전시, 임대, 판매 등 거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9층 에이05호
■ 수장고형 전시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537번길 114, 마동(Y스튜디오)
■ 070-7678-0002
■ myartwork.co.kr/misullo.com
■ myart@misullo.com



미학관 MIHAKGWAN(Philosopher's Stone)

미학관은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상징을 지향하는 전시 공간이자 동시에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과 교육, 전시 기획과 아트컨설팅에 특화된 문화예술 에이전시이다. 미학관은 시각문화예술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판의 가치를 인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시, 영상미디어 스크리닝, 워크숍, 출판, 아트페어, 아카이빙 등 문화예술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한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158, 1층
■ <https://www.mihakgwan.com/>
■ mihakgwan@gmail.com



갤러리 타블로

Gallery tableau

갤러리타블로는 2005년 인사동에 처음 문을 열고 페인팅, 조각, 설치, 미디어 작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전시하며 새로운 아트를 선보여왔다. 이후 강남을 거쳐 미사신도시로 전시장을 이전하여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전시를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작가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아트 마이애미, 아부다비 아트페어, 아트 파리, 아트 런던, 홍콩 센트럴, 아트 싱가포르, 아트 뉴욕 등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뛰어난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며 고객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Gallery Tableau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70
▣ <http://gallerytableau.com>
▣ imjeonggi@naver.com



리미티드블루(ART)

Limited Blue(ART)

리미티드 블루(ART)는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아트 기획사이다. 재기발랄한 감각과 독창성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을 엄선하여, 기획부터 전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보다 폭넓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Limited Blue
Art Agency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19, 709동 501호
▣ 070-8959-9957
▣ www.limitedblue.co.kr
▣ limited_blue@naver.com



월링앤딜링 아트컨설팅

Willing N Dealing

월링앤딜링 아트컨설팅은 2010년 설립되었으며, 12년에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전시 공간 <스페이스 월링앤딜링>을 오픈하였다. 전시, 협업,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현대미술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전시를 중심으로 아티스트 토크, 비평글 생산 등을 통한 작가 연구, 전시제작 및 창작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국내 및 해외 전시 협업 등으로 타 갤러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국내외 작품 유통과 콘텐츠 유통에 적극적인 활동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WILLING
N
DEALING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8-1, 2층
▣ 02-797-7893
▣ <https://www.willingndealing.org/>
▣ willingndealing02@gmail.com



2025
아트경기
미술품 판매형
전시사업 컨소시엄

널위한문화예술

Artforyou

널위한문화예술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시각예술’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영상, 카드뉴스, 출판물,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유저에게 친절하고 흥미로운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총합 130만명의 구독자와 매체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제품과 서비스, 전시와 출판 등 예술산업을 소비자와 연결시키며 광고, 커머스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8(서교동) 3층
<https://www.instagram.com/cultureart4u>
jihyeonapril2958@artculture4u.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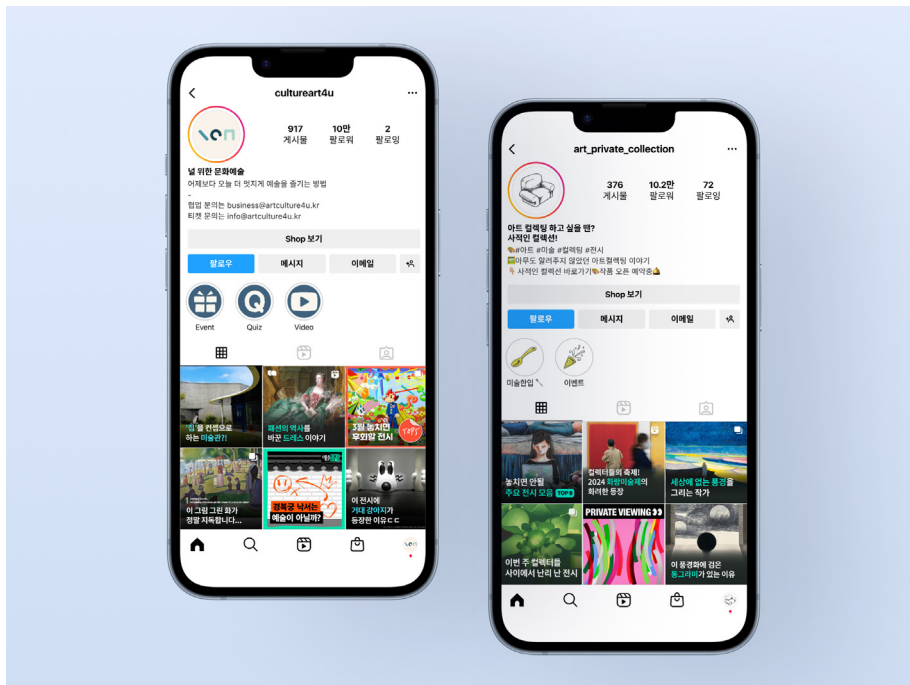
아워레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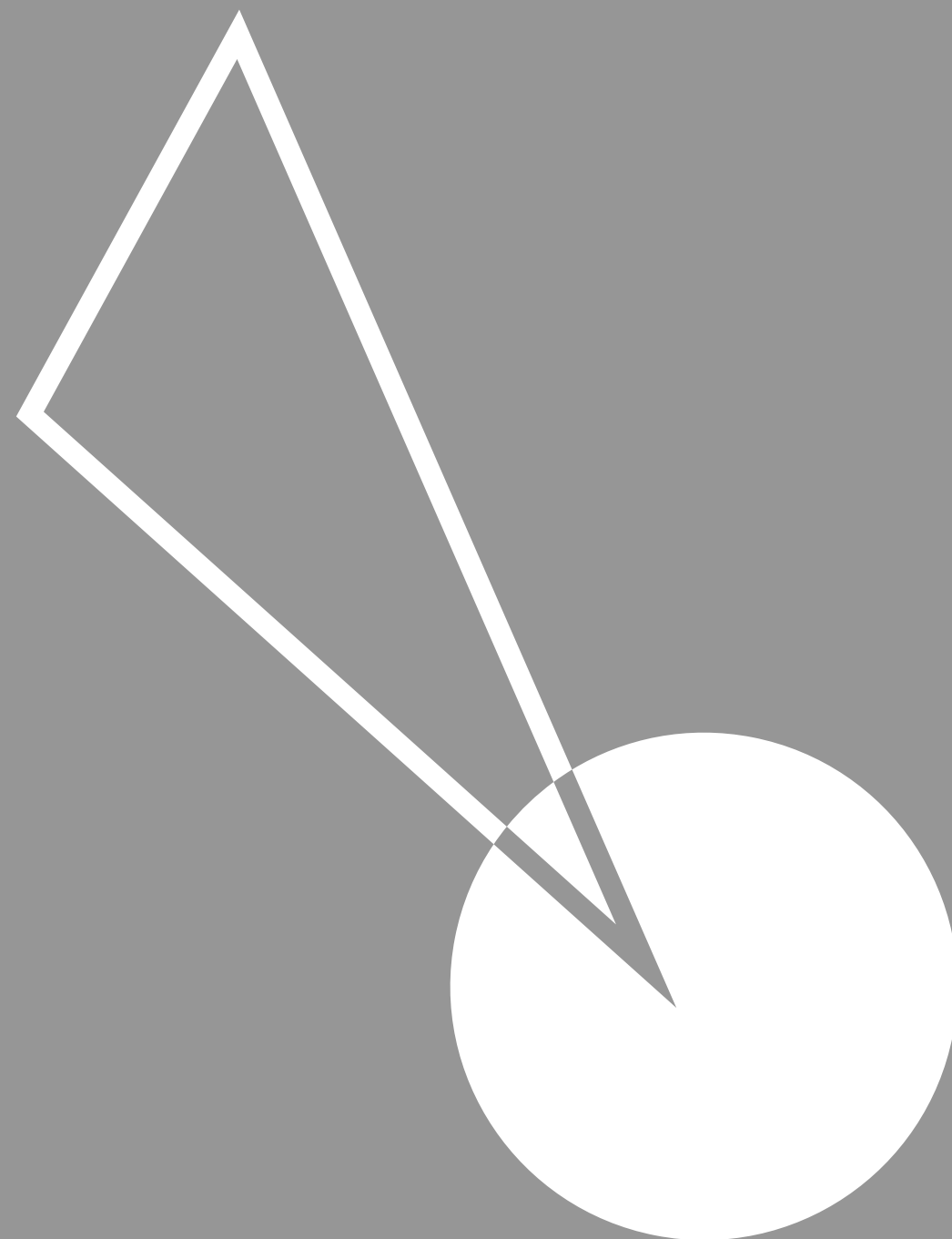
OUR LABOUR

OUR LABOUR는 조각, 설치미술,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플라워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모인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개념을 실체화하고, 만들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실험을 거듭한다.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 미술 기반의 전시 공간 디자인부터 기업의 아트프로젝트 기획, 실현을 아우르며 예술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감각과 경험’을 제공한다.

OUR LABOUR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7 4층
www.our-labour.com
contact.ourlabour@gmail.com





2025 아트경기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유정주(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25. 08. 14.

총괄 이규석(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장)

기획 김진희, 이지희, 구소라, 현수빈

협조 채지영, 이주영, 조담희, 김한솔, 이주현, 박도혜, 이다현, 박수빈,
김진아, 박지예, 고나운, 차미란

주소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7237~8

이메일 artgg@ggcf.or.kr

누리집 artgg.ggcf.kr

디자인 김혜린

아트경기 채널 안내



인스타그램
@artgg_official
아트경기 최신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자



아트경기 누리집
artgg.ggcf.kr
아트경기 한 눈에 살펴보기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경기문화재단 공식 누리집



지지씨
ggc.ggcf.kr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